

지겨운 월드컵 이야기, 또 하나¹⁾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내 생각

권혁범

1. 앞 이야기

스포츠광인 나는 6월 한 달간 참으로 즐겁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월드컵 경기장에 두 번 갔고 거의 모든 경기를 텔레비로 보았다. 그러나 점점 언론의 국가주의적 선동속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축구라면 주요 경기를 예약녹화에서 밤늦게 까지 보는 나를 추월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내 동생마저 ‘마니 묵었다. 고마 해라!’ 할 정도였다. 세계적인 축구를 즐기며 그속에 폭 빠져보려던 내 기대는 갑자기 월드컵 응원이 애국심과 열린 음악회에 의해 포획되면서 깨지고 말았다.

2002년 6월 한 달간의 광란은 무엇인가? 축구에 대한 열광? 축제에 대한 열광? 조국에 대한 열광? 아니면 세 가지 모두의 화학적 결합인가? 포스트월드컵에서도 얘기는 계속된다. 어떻게 해서든 월드컵에 모든 걸 걸부시키려는 욕망은 살아있다.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려는 온갖 시도가 ‘국가신인도의 제고’ ‘코리아브랜드’ ‘열광의 에너지를 일상의 에너지로’ 등등으로 씩없이 나타난다. 내 생각으로는 가장 큰 재앙은 대회 초반에 광화문 시청등지에서의 오리지날 붉은 악마의 응원이 갑자기 나타난 ‘열린 음악회’에 의해 포섭된 사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7월 2일 강남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진 ‘4강 진출’ 축하 잔치였다. 거기서 국가와 자본은 완전히 자발적인 열광과 신명을 재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충동원령에 의해 동원된 지식인들’은²⁾ 거기에 기꺼이 봉사했다.

1) 이 글은 내가 지난 한달 동안에 한겨레신문, 뉴스위크(한국판 그리고 일본어판), 말지, 민가협소식지등에 발표한 관련 칼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글의 상당부분은 「시민과 세계」 제2호와 「당대비평」 가을호에 발표될 에세이와 비평의 일부이기도 하다. 인용을 삼가주시면 고맙겠다.

2) 어떤 월간지 기자가 내게 보낸 사신에서 쓴 표현이다.

이러한 열광, ‘붉은 악마 현상’으로 불리는 열광의 원인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 동안 쏟아져 나온 붉은 악마현상 담론을 정리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본다. 민족주의자는 열광에서 뜨거운 조국애를 발견하고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정신의 회복을 본다. 축구광은 오로지 세계의 다양하고 선진적인 축구간의 대충돌과 새로운 축구정신을 읽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식인들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미지의 유사성에서 현실적인 접합점을 읽어내려는 지식인들의 시도는 모래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붉은 악마와 레드 콤플렉스와 무슨 상관이며 80년대생 90년대생이 주축이 된 거리의 응원에서 무슨 6월혁명과 광주 봉기의 정신을 읽어낼 수 있을까? 서해교전 후 여전히 횡행한 안보제일주의 담론은 이러한 식의 비유가 아전인수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내 생각에는 ‘붉은 악마 현상’을 둘러싼 세 가지 담론이 있다.

1) 그냥 신나게 논겁니다. 즐긴거라구요.

아무 의미 없이 단지 좋아하는 팀이 같은 것뿐이라고요.

2) 정말로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조국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남녀노소 지역, 계층을 넘어서 ‘온국민’이 하나가 된 이 기쁨!

3) 파시즘과 애국주의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전제 1: 축구인, 언론, 지식인, 붉은 악마 현상의 주체인 일반시민, 붉은 악마 회원 등을 구분한다.

전제 2: 붉은 악마와 붉은 악마 현상을 구분한다.

2. 붉은 악마 현상은 무엇인가?-축제, 축구, 국민

2.1 축제는 필요하고 축제에서는 미쳐야 한다.

축구를 ‘빙자’한 축제였던 것은 분명하다. 광란의 축제. 근면 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이번 월드컵은 소소한 근심과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아마도 효율성의 집단적 강박에 억눌려있던 이드(id)의 자기분출 욕구에서 오는지도 모른다. 특히 입시지상주의와

회사주의에 억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일본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한국팀의 승리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4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다. 그렇다면 그냥 맘껏 즐겼는데 먹물들이 과잉으로 의미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축제가 하필이면 이번에 벌어졌고 왜 2400명이 거리에 쏟아졌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을 공동체정신의 복원이나 남녀노소 지역계층을 초월한 온국민의 단결로 읽어내려는 담론은 완전히 ‘오버’다. 기성세대는 공동체로부터 억압받아온 한국 젊은 세대의 해방 욕망마저 다시 ‘국민주의’에 가둬놓으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축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며 그 억압으로부터의 탈주다. (10대들은 자신들이 쉽게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시공부에서 정당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달려나갔다). 거기서 개인은 완전히 자기자신이 되고 공동체로부터 해방된다. 주변사람들과의 미친 듯한 공명 현상은 완전히 절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하고 찬양하는 타인의 해방지원적 시선에서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 길거리 응원 참여자들의 광란은 해방에 못 미치는 것이었고 그들의 광기는 너무도 부족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신세대들의 민족의식, 공동체의식이 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일부 지식인들의 얘기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 난 그 동안 신세대들의 민족의식 공동체의식이 약하고 다양한 개인중심성이 강해지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열광을 보며 그들의 뿌리깊은 ‘국민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언론이 국가주의를 선동했다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또한 스포츠는 스포츠 혹은 축제는 축제일뿐이라고 믿으며 모든 먹물들의 분석이나 해석을 과잉의미부여라고 생각하는 신세대의 생각은 신선하다. 하지만 그것은 스포츠, 특히 국가스포츠나 다국적 자본에 의해 이미 침투된 스포츠에 대한 순진한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일보 등의 언론이 한미전에서의 반미주의 표출을 경계한 사전선동에 휘둘러 오히려 매우 공손한 응원전을 펼치고 정치적 반미주의를 완전히 제거한 붉은 응원자들의 판단에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정신이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다. (물론 안정환의 세리머니는 기발했지만 그것은 매우 감정적 반미 포퓰리즘의 표현이며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반미주의를 밀어내는 효과를 갖는다).

2.2 문화적 획일성, 즉 다양한 취향과 축제의 부재

그것은 집단적 열광의 계기가 너무도 부족했던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을의 축제가 어디 있으며 학교나 직장에서 마음껏 광기를 발산할 기회가 언제 있었는가? 열악한 스포츠 및 문화 인프라에서 한국인들은 기껏해야 노래방이나 연속극에 열광하고 ‘가든’에서 고기 구워먹기, ‘친구’를 한국 최고의 영화로 만들어주는 일에 자족했을 뿐이다. G.O.D 혹은 신화에 대한 신세대의 열광조차 아마도 기존 한국사회의 이런 문화 공간의 후진성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광적인 응원은 자랑스러워할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결여에서 오기 때문이다. 74%~91%의 시청률은 자랑스럽기보다는 축구이외의 놀이를 찾지 못한 한국사회의 집단강박증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닐까? 한국인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다. ‘불쌍하지 않은가?’. 마을, 학교, 직장 등의 일상적 공간에서 열광적으로 놀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쟁취한 월드컵, 오로지 국가대표간 경기에만 시민들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시민’들은 즉각 ‘국민’으로 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광적 응원에 전을

했다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자기 도취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단적 국민 패닉일 수도 있고 한국 스포츠문화의 후진성의 증거일 수도 있다. (국가경기 때마다 강조되고 찬양고무되는 ‘투혼’과 ‘사생결단의 정신력’은 축구를 즐기는 스포츠라기 보다는 집단적 과제로 엄숙하게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태도의 표현이다).

신세대의 개성적 자기표현,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유자재로 용도 변경한 반엄숙주의, 축구응원을 매개로 삶을 즐겨보려는 태도 등은 긍정적이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성세대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다양성이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이 큰 궤도 안에서만 발현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 궤도란 ‘국민국가’적 정체성이다.

2.3 빈 공간에 파고든 우리 안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

2.3.1 수천만이 모두 붉은 악마가 되어 똑같은 박자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에 광적으로 응원을 보냈다는 것은 뭔가 집단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육된 집단적 제식훈련 문화의 반영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부족을 국민주의가 매꾼데서 오는 결과다. 그것이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더 위험하다. 서태지 혹은 조용필에 2400만 명이 열광했던 일은 없었지 않은가? ‘국가대표’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결국 길거리에서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애국가4절까지 복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걸 ‘민족적 자부심’의 발로나 ‘공동체 정신의 회복’으로 ‘오버’해서 찬양하는 기성세대는 공동체로부터 억압받아온 한국 젊은 세대의 해방 욕망마저 여전히 ‘국민주의’에 가둬놓으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위험하다.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수사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한겨레에서 조선에서 이르기까지 일치단결하여 ‘온국민이 하나됨’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무서운 획일적 집단주의 세계관이 한국사람들 정신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들이 한국 응원단의 ‘일사분란함’에 대해 느끼는 ‘전율’도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같은 복장, 구호, 노래 그리고 정확한 박자는 모든 응원의 보편적 경향이지만 한국 응원단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과도한 ‘일사분란함’이다.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는 수사학으로 괜찮지만 사실과는 어긋난다. ‘온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선동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국외자(축구를 싫어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한 수백만 시민, 파업하는 노동자부터 이번 월드컵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집단, 그리고 단 한번도 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민’과 관계없는 수많은 집단의 목소리는 은폐되었다. 국민은 매우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그 외의 집단적 규정 및 정체성은 그 밑의 하위단위로 인식되거나 사라진다. 국가대표 선수, 일반축구선수, 축구팬, 축구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노점상, FIFA, 월드컵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간의 복잡한 관계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환경문제는 어디로 갔는가?)³⁾

그것은 놀랍게도 진보에서 보수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공유하는 한국사회의 ‘국민운동’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충동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큰 사건만 터지면, 다양하고 모순적인 집단 및 개인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즉각 ‘국민’으로 적당히 뭉뚱그려버리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충동

3) 이번 월드컵 기간동안에 축구를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그것은 거의 인권침해 수준이었다. 월드컵과 그것에 대한 열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지 8월호의 대학아마추어 축구에 관한 기사와 최상천 칼럼, 한겨레 왜냐면의 몇 독자 칼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서, 교수신문의 문화비평(김진호 칼럼) 등이 소수의 예외로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와 매우 관점과 취향이 다른 손석춘씨, 김규형씨 등이 오히려 이번 월드컵 열광에 매우 비판적인 글을 썼다.

말이다. 그것은 추상적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성원,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을 ‘온국민’ 혹은 ‘한마음 한뜻’의 이름으로 묶고 싶어하는 언론과 국가의 욕망,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깔려있는 것은 지독하게 획일적인 집단주의다. 거기에 과연 주체적인 시민, 개별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을까? 한겨레 지면에서도 국민운동의 충동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왜냐면’에 투고한 무명의 시민 둘이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16강’이라는 구호는 사실 국민이 하나의 동질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의 표현이다. 거기서 국가, 국민, 사회는 하나로 혼용되며 거기서 개인과 아웃사이더는 실종된다. 동시에 축구라는 일종의 스포츠 혹은 게임은 ‘국가’적 과제를 의미 부여받는다. 그것은 국가간의 전쟁이 되고 국가의 명예를 상징하는 아니 실제로 표현하는 매개가 된다. ‘태극전사’에게 부여된 ‘16강’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그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으랴. 심지어 마치 이러한 전국민적 응원을 통해서 파편적 개인주의를 넘어선 전통적 공동체 및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처럼 선전하는 우스꽝스러운

담론까지 나타난다.

국민적 동질성이 강화되는 게 뭐가 나쁘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 내의 관계를 해방과 우호적인 것으로 이끌지 않는다는데 있다. 동질성의 강화는 바로 그만큼 그 동질성의 울타리로 들어오지 않는 혹은 들어올 수 없는 이질적 단위 및 개인들을 억압한다. 그들은 그만큼 따가운 시선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 안에 들어오라는 압력과 억압이 배가된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될수록 오히려 억압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강화되는 역설이 생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외부세계를 향해서도 똑같이 작용한다. 세계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동개최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과 외부와의 의식적 경계는 한층 강화되고 시멘트처럼 굳어진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강화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을까? (국민의식이 강할수록 글로벌 의식은 약화되고 국가를 단위를 한 자기만족적 폐쇄성은 강화된다. 평화시에 그것의 위험은 숨겨져 있지만 국제적 갈등이 고조될 때 그것은 항상 제노사이드의 정서적 힘으로 돌변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 차이다.

자발적인 열광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배타성이나 국수주의도 별로 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서 ‘온국민’과 ‘대~한민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치에 열광했던 독일시민들도, 히틀러를 수상에 올려놓았던 독일의 선택도 자발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번 한국시민들의 자발적 열광은 직접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열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는 한국시민들의 의식에 내면화된 ‘국민’, ‘민족’ 의식이 작동한 데 있다. 반공주의적 열정도 얼마나 자발적인가? 조선일보 등 냉전주의 언론의 선동에 자발적으로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도 수백만을 넘을 것이다.

2.3.2 나르시시즘이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혹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운동의 분위기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족적 자부심론의 문제는 그것이 상당히 자폐적인 자아도취 혹은 지독한 자민족중심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국팀의 운명이 관련되지 않는 비인기 경기에 시민들을 동원해야 할 만큼 무관심했던 것은 대한민국 중심주의의 문제를 드러낸다. 도무지 ‘다른’ 외국 혹은 축구경기 자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국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민족

적 나르시시즘이 진동했다. (내가 거금 11만원을 투자해서 간 미국 - 멕시코 전에는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었고 압표는 만원, 삼만 원에도 팔리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비인기 경기에 발생한 빈 좌석을 메우기 위해 학생들은 ‘70년대 식으로 동원’되었다). 외국 팀간의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을 외치는 유아적 자기중심성은 무엇을 말해 줬을까? 극우냉전주의 <조선일보>부터 국가주의에 비판적인 <한겨레> 신문까지 모든 언론은 ‘전신만취 주사’를 맞은 듯 하나같이 민족적 자부심과 공동체문화를 과시하는 기사로 넘쳤다.⁴⁾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식의 자아도취가 극에 달했다. 민족적 나르시시즘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내부의 문제, 내부와 외부의 관계 및 역학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적 의미를

4) 공교롭게 같은 날 경기를 가진 중국이 패하고 일본이 선전에도 불구하고 비기자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외신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일본의 선전에 놀라워했지만 역시 승리한 것은 한국뿐이라는 자부심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한국-뜨거운 거리... 일본-차분한 안방”이라는 타이틀에서 보여지듯 공동개최국간의 연대감 속에 은근한 경쟁의식과 자기우월감이 들어 있다. 물론 그 날 골을 넣은 유상철 황선홍 선수가 “J리그에서 활동중”인 것을 유달리 강조한 일본 언론도 이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곧 이어 일본이 러시아를 꺾자 일본과의 경쟁의식 못지 않게 연대감도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반응은 대체로 매우 자아 도취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경기 승리와 국민적 열광, 그리고 공동체적 질서 지키기에 스스로도 감탄하고 찬양하는 담론이 넘쳐난다. 관람 질서, 경기 후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모습, 붉은 악마가 리드하는 수만의 일사불란한 응원,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한 대우에 (심지어 어떤 홈스테이 가정은 한 외국인에게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한 자화자찬과 외국 언론의 찬사가 한국 신문에 끝없이 소개된다. 심지어 한국-폴란드 경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방송은 폴란드 현지를 연결해 폴란드인들의 한국전에 대한 반응을 즉각 보도했을 정도다. 외국인에게 어떻게 한국이 보여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한국 언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한국이 혹은 한국팀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나라인가?” 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가 따라야 할 선례’로 갑자기 부상한다.

알게 될 때 외국인들은 과연 뭐라고 반응할까? 외국인은 오로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이라는 식의 자아 도취적 자화자찬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의식은 더 강화된 것은 아닐까? 한국의 자원봉사자와 기자들까지 ‘대~한민국’을 외친 것은 한국사회에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는 객관성/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는 것 증명한 것은 아닐까? 외국인은 오로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라는 식의 자아 도취적 찬사를 확인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의식은 이번에도 강화된 것은 아닐까? 이탈리아 언론의 심판 비난에 그렇게 분노하는 한국언론이 그걸 계기로 지난 동계올림픽 ‘금메달 도둑’ 사건의 심판과 오노에 대한 한국인들의 민족 감정적인 매도에 대해 돌이켜 반성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자폐적인 한국 민족주의의 위세를 증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외국 팀을 응원했던 6만여 한국인 서포터, 일본팀의 선전을 진심으로 축하했던 붉은 악마 회원들, 세네갈 / 남아공 / 카메룬 / 터키 등 비백인 / 비인기 팀을 열렬히 응원했던 관중들,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은 좁은 ‘국민국가’의 테두리

를 넘어서 보편성에 접속하려는 한국사회의 작은 불씨가 될까?). 히딩크 감독의 가장 큰 공로가 있다면 그 자신이 외국인인 점, 즉 그 바람에 이번의 열광이 혈연적 민족주의로 퇴락하는 최악의 수를 미리 봉쇄해준 점이다. (물론 그의 연인 엘리자베스의 공로도 막상막하다. 백인 중심성에 대한 신선한 약간의 타격이며 동시에 법과 관습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사랑 관계의 모델이다).

2.4 보이기 위한 질서와 친절? 누구의 시선인가?

국내 축구리그에서는 운동장이 텅텅 비고 초중고대학 경기는 맨땅에서 치르면서 ‘국가대표팀’에는 수십 억씩 쓰는 나라는 과연 스포츠, 축구를 사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회가 왜 평상시에는 제3세계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학대할까? 갑자기 도래한 공공질서 지키기 문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무질서로 정평이 나있는 한국의 시민들이 오로지 ‘월드’에 보이기 위해 태도를 확 바꾼 것은 긍정적인 변화일까?

모든 외신이 한국인의 질서의식, 쓰레기청소, ‘독특한’ 응원문화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가 매일 한국언론의 한 지면을 메웠다.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한 대우에(심지어 어떤 홈스테이 가정은 한 외국인에게 입장권을 무료

로 제공했다!) 대한 자화자찬과 외국 언론의 찬사가 한국 신문에 끝없이 소개된다. 한국 언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나라인가!” 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평상시의 공공질서의식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부족한 한국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월드’에게 뭔가를 보여 주기 위한 한국인들의 담합행위의 결과다. 그것은 정신적 식민주의와 열등의식의 결과로 생겨난 비주체적인 시선의 표현이 아닐까? 또한 ‘나라에서 큰일’을 치르는데 대한 ‘백성’들의 협조의식은 아닐까? 질서! 질서! 외치며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내고 타국팀에 대한 유례없는 격려와 존중의 응원을 펼친 것은 좋은 현상이기만 할까? 내 관점에서는 꼭 그것이 ‘착하게 살자!’는 급훈에 따르는 학생들의 모습 같아 보였다.

또한 강제적 차량2부제를 별다른 논의없이 시행하는 것, 그리고 국가행사로서의 월드컵 치르기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공익캠페인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이 없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국가동원주의적 정서가 강한지를 증명한다. 언론과 정부가 독려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에 따라가는 한

국민들의 순응주의적 ‘공모’는 칭찬받아야 할 태도인가?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꼼꼼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환경운동단체조차 이번 월드컵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5 승리주의 / 힘의 논리

한국팀이 토나먼트전에 진출하지 못했더라 해도 이런 ‘국민 축제’가 가능했을까? 어떤 시민은 이번의 열광이 그 동안 한국인이 욕망했지만 한번도 표현할 수 없었던 ‘국민국가적 힘의 과시’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맞는 말이다.

2.6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과 히딩크 영웅 만들기

한마디만 하자. 나는 히딩크 감독이 한국축구 선발의 지연/학연주의를 배격한 최초의 인물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허정무, 차범근 감독 등은 지연과 학연에 입각해서 선수 선발을 했나? 아니 자기 목이 걸려있는데 실력 없는 선수를 단지 연줄을 이유로 뽑는 그런 미친 짓을 할 리 있는가? 차 혹은 허 감독이 이번 월드컵 선발전수 그대로 뽑았다고 하자. 언론이나 축구계가 가만 있었을까? 히딩크 감독은 그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비판에서 면제되었을 뿐

이다. 그도 그의 축구철학과 스타일에 입각해서 뽑았을 뿐이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거지?

2.7 오 여성은 어디 있는가?

자꾸 이런 사람들이 눈에 밟혔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즉 축구에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월드컵 때문에 장사 망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노점상, 파업중인 노동자, 맨땅에 헤딩하며 골절상 입고 있는 아마추어 축구선수들, 여자 축구선수, 실력이 막상막하인데도 월드컵 대표선발에서 떨어졌거나 제외된 축구선수들 때문에 안타까웠다. 윤정환, 김병지, 현영민, 최인성 등을 잠깐 잠깐 화면에서 볼 때마다 속이 쓰라렸다.

뉴스나 화제집중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앞 다투어 소개한 것 중 하나는 여성들의 열광과 다양한 참여다. 태극기로 브래지어를 하고, 배꼽티를 입고 술먹고, 새벽까지 소리지르는 광란, 평상시에 여자와 청소년에게 얼마나 금기시되었던 이탈인가? 여성들은 폭발했다! 내가 아는 30대 초반의 남자는 거리에 잔

뜯 몰려나온 10대 20대 여자들을 보면서 저건 다 가짜고 다 거품이라고, ‘진짜’는 (즉 남자들은) 집에서 조용히 티브이에 집중해서 축구만 본다고 비아냥 거렸다.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저 여자들이 월드컵이 끝난다고 K-리그장에 다시 나타나란 보장은 없지. 오히려 서태지나 신화 콘서트장에 가서 대한민국 대신 신화를 외치겠지. 하지만 축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여자들의 열광,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 여자는 어차피 축구선수가 될 수 없어서 (딸아이도 축구반에 들어갔다가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의 왕따로 인해 공 한번 제대로 차보지 못하고 나왔다), 하다못해 여자 조기동네 축구단도 없어서 여자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차단 당한 거지. 근데, 만일 이번 애국심이건 획일주의적 맥락이건 간에 그 속에서 축구의 묘미와 스포츠의 즐거움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그게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아닌 신체 단련을 위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즐거운 교감과 접촉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스포츠를 경험했다면 그건 좋은 효과겠지.

여전히 냉철한 비판과 분석은 유효하다. 우선 ‘국민’ 동질성의 강화는 ‘비국민’을 만들어내고 배제한다는 역설을 생각해 보자. 그 ‘비국민’의 일변 타자는

여성이었다. ‘대한 건아’, ‘대한 남아’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아버지 같은 히딩크, 엄마 같은 박항서’ 같은 문구의 연발은 스포츠 및 응원을 남성주의적 코드로 읽어내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또한 관람 문화 자체가 성역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곳도 꽤 많았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구경을 하는데 여자들은 열심히 전 부치고 술 나르고 노인, 남자와 아이들은 앉아서 화면 쳐다보는 성분업은 꼬떡없이 작동되었다. 남자는 스포츠 주제, 여자는 스포츠 응원하는 치어걸 이분법이 여전히 복제, 반복되었다. 남성선수들의 경기에 여성들도 그토록 열광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전형적인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의 열광이 아니었을까?

김남일에게 열광하는 오빠부대, 그에 못지 않은 (농구선수) 정선민이나 전주원에 미치는 누나부대는 언제 ‘대~한민국’에 나타날까? 내년의 중국에 이어, 여성 월드컵 경기를 남북 코리아가 개최하는 날이 곧 올까?

2.8 포스트 월드컵

3.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 시키자는 얘기, 이제 그만 하자.

물론 이러한 월드컵 과잉 현상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한순간의 유포리아며 찰나의 황홀일 것이다. 준결승에서 한국팀은 멈췄고 월드컵 잔치는 끝났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여전히 싸우고, 일하고, 버리고, 위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위험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을 지도 모른다. 맘껏 소리지르고 떠들고 흔들고 마시는 건 좋은 일이다. 금욕주의자나 엄숙주의자의 눈으로 축제를 재단하지는 말자.

하지만 이러한 이상열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지독한 자아 도취적 집단주의 내셔널리즘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포스트 월드컵에서 열광의 에너지를 각종 형태의 에너지로 전화시키려는 발빠른 기획과 전유의 욕망에서도 드러난다. 축제의 에너지는 축제에 낱돌 수 없을까? 승화니 전환이니 복귀니 하는 국민적 통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거리를 두며 성찰하는 개인과 집단이 없는 한 한국

사회의 국민국가적 억압과 차별, 즉 끊임없이 ‘비국민’을 생산하고 배제하는 메커니즘은 극복의 계기를 맞기 어렵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자아도취는 식민지와 저발전의 상처에 대한 역반응이다. 그것은 ‘월드’에서 배제되고 멸시되었던 타자들이 다시 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혹은 이미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적 불안감의 반영이다. 선진국의 강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과 같은 지구의 변방에 속해있던 사회에서는 중심부에 대한 열망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정신적 식민주의의 이면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종의 원한 심리와 민족적 나르시시즘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건강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난의 억압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이 세계적 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나 태극기의 의미를 전복한 붉은 악마의 응원에는 솔직하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스포츠 축제에 대해 온갖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과대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들을 ‘국민’과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적 무의식적 ‘국민운동’! 이제는 ‘레드카드’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권 혁 범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dju.ac.kr/~kwonhb

6월의 활력과 미디어 그리고 여성장

김소영

1. 전광판을 공적 공간, 활력, 여행의 장으로!

전광판이라는 거리의 TV는 기존의 TV 시청 양식을 바꾸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시청 앞 광장에서 전광판을 함께 바라보고 붉은 악마라는 정체성을 공유했다. 이때 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과 같은 장소는 공공 공간, 나아가 대안, 저항 공간 (Counter-Public)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광판 역시 순간적으로 기존 광고판의 역할을 떠나 공공, 저항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존의 TV 관객성이 가족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었다면, 현재 서울의 빌딩 벽에 설치된 대형모니터들은 집단적인 관람을 요구한다. 차에 타고 있거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전광판이 보여주는 광고들과, 뉴스 그리고 영화 예고편들을 보게 된다. 아니, 본다기 보다는 일별한다. 대상을 한번 훑듯 보는 것이다. 전광판이 설치된 후 서울의 미디어스케이프는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빌딩 벽 위의 거대한 이미지들은 일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효과를 일으킨다. 예컨대 기존의 도시 공간에 이질적 시간성과 공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종의 헤테로토피아가 끊임없이 전광판과 그 주변 공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전광판들과 관계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다.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만한 개념적 틀이 없었던 관계로 그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은 미미했지만 나는 그 프로젝트와 월드컵 전광판 이벤트를 결합시켜 앞으로 전광판을 2002년 6월 기념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제안하려한다.

전광판이 퍼블릭 아트로 사용된 것은 2000년의 미디어 시티 축제를 통해서다. 미디어 시티 2000은 이 전광판을 통해 백남준을 포함하는 25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도시 전역에 방영했다. 이 실험적 프로젝트의 이름은 “클리프 시티 (Clip City)” 로 광고가 난사되던 전광판에서 1분짜리 실험적 이미지들을 본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축 분위기는 송일곤 감독의 [플러쉬]라는 작품에서 십대 소녀의 태아 유기가 문제되어 전광판 프로젝트에서 제외됨으로써 소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전광판을 공공 예술의 장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티 2000의 예를 들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광판의 공공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 즉, 세종로가 거리이면서 동시에 광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전광판 역시, 그것이 설치된 빌딩 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노출된 그 외부성 때문에 공공 기능을 가져야한다.

시청 앞 광장의 전광판을 통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집단적’으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한 행위는 이제까지 개별적, 가족 단위의 TV 시청 혹은 미디어 시청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공동 개최국인 일본이 전광판 앞의 응원 집회를 불

허한 데 반해 한국 정부의 결정은 달랐다. 이 결정은 월드컵 TV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과 팬덤을 바꾸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은 일시적인 공공 공간 혹은 해방 지대로 바뀌었다. 1987년의 민주 항쟁의 기억은 바로 광화문과 시청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억, 다중에 대한 기억으로 2002년 6월에 스며들게 된다.

거대한 전광판과 더불어 삼성과 LG와 같은 TV 제조사들은 HD급 홈 시어터 종류의 TV 세트를 월드컵을 전후해 공격적으로 판매했다. 올림픽 경기장의 구조가 콜로세움과 유사하고 그래서 관람석 뒤에서도 선수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HD급 홈시어터가 바로 그 부분을 재연한다고 선전했다. 바로 그 TV와 전광판을 통해 월드컵 기간 중이나 그 이후, CG 기술은 피버노바가 만들어 내는 승리의 순간을 마술적으로 재현해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은 새로운 HD급 TV 세트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식당, 호프집 주인들은 앞 다투어 대형 TV를 사야했다. 인터넷을 통해 ‘붉은 악마’라는 팬클럽이 결성된 것을 고려하면 IT 기술 역시 월드컵의 일부였다. 2002년 월드컵이 그토록 스펙터클하게 부풀어진 이유는 물론 한국이 4강에 들었다는 것이며 대중의 폭발적 호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접화는 전광판과 TV 그리고 위성 TV 케이블과 인

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크린 문화와 몸의 축제가 함께 만난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통합적으로 융합시킨 것이 붉은 악마라는 정체성이다. 이외에도 많은 중첩적이고 우연적 요소들이 거리의 TV 전광판 앞에서의 집단적 관람과 그 앞에서의 공연과 연행들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전자화 되고 디지털화 된 콜로세움인 TV에서 관객들이 보는 것은 어떤 채널을 선택하건 해설자들의 특성을 제외한다면 사실 앵글과 샷 그리고 리플레이의 측면에서 동일한 것이었다.

FIFA가 HBS(Host Broadcasting System)에게 월드컵 중계 독점권을 주었고 KP(Korean pool, KBS, MBC, SBS)가 5천 5백만불을 지불하고 지역 방영을 했다. 미디어로 연결되는 월드컵 글로벌 빌리지이긴 하지만 분명 통제가 없는, 고삐 풀린 지구촌의 풍경은 아니었다. HBS는 독일의 키르히미디어에 의해 운영 되었고 바로 월드컵은 이러한 동일한 미디어의 지배에 의해 반복 방영된 특정 장면에 기반 한 대중의 동질적 기억을 제조했다. 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시청하게 된 퍼블릭 TV인 전광판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을 덧붙였다. 전광판 앞 응원과 박수와 춤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에 따르는 동작 그리고 몸/얼

굴 페인팅과 국기를 동원한 의상 등은 전광판의 관람 경험 양식을 균질적 화면과는 다른 활극으로 바꾸어냈다. 사전적 의미로 활극은 격투, 충격 따위를 주로 하는 연극이나 영화 혹은 영화나 연극의 난투극처럼 벌어진 실제의 투쟁이다. 그러나 그 용어는 “카수케키”라는 일본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즉, 외래의 것이 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의 활극 그리고 이후 액션 영화로 변화한 것이다. 활극의 의미는 몸, 실제 경험 그리고 재현과 실제의 통약가능성을 가리킨다. 월드컵 축제를 흔히 난장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나는 월드컵 축제의 양식이 활극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와 몸의 움직임이라는 축제가 섞여있고, 이때 몸의 축제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예컨대 미디어의 “다시 보여줌(representation)”과 실제로 거리와 광장에 군집된 대중들의 “보여줌(presentation)”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2년의 월드컵 축제는 난장이라는 비매개적 전통적 양식으로의 회귀와는 다르다. 미디어의 매개를 거쳐,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재료들이 함께 부딪힌 것이다. 이때 아시아가 바로 그 지역과 전지구적인 것을 매개하는 빗금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거리의 대중들과 미디어가 서로를 피드백하여 마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무엇으로 월드컵이 궁극적으로 표상되었다는 점에서 활극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축제를

비극이나 희극과 차별적인 활극으로 다시 본다면 활극으로부터 어떤 에너지, 즉 활력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때의 활력은 권력에 대항하는 힘이다. “오늘날의 폭력, 즉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비폭력이 아니라 활력이다. 활력은 대항 권력이 아니라 반권력이며 집중되는 힘이 아니라 분산하는 힘이다.(조정환 2002:12)” 6월의 붉은 물결에서 활극과 활력을 이렇게 형식(장르)적, 담론적으로 추출하는 경우 6월의 집단적 문화에 대한 매우 경청할 만한 비판인 집단주의/민족주의적 정서의 폭력성이 가진 힘을 재조정(re-orient)할 수 있는 형식적, 담론적 실마리가 잡힌다.

즉, “이러한 집단주의적 정서는 항시 국가주의적 동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국가주의적 동원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의식, 즉 팽창적 국가주의나 배타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우리 사회에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정진웅 18:2002)”를 성찰하면서 6월 붉은 물결의 에너지를 향후 반권력적이며 분산적인 민주적 활력으로 돌릴 수 형식과 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컵을 멜로 드라마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있다. 예컨대 월드컵을 ‘민

족전쟁’이라는 총력전과 서사, 멜로 드라마적 상상력의 접합면으로 분석하는 경우 필자(신형기)가 주장하는 “감정적 집단화가 집단적 복속의 요구를 재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적인 전복의 상상력은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희생의 파토스를 통한 쇄신의 의지는 현재를 긍정함으로써 결국 이 개발의 시대를 지속시킨 메커니즘의 일부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발의 시대는 파토스와 나아가서는 쇄신의 의지 자체를 소비해 버린 것이며 이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신형기 2002:146)”에 동의한다. 그리고 붉은 물결을 이룬 ‘자발적 동원의 배경에서 깊은 불안과 불만 그리고 공포를 동력으로 하는 멜로드라마의 신경증을 읽었다.’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 자체를 1.로컬 / 글로벌의 빚금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출현을 매개하는 전자, 디지털 미디어 2. 광장이라는 공간의 정치학 3. 몸의 활력화를 통한 활극적 연행과 미디어의 만남이라는 장르들과 양식에서 분출된 것으로 본다면 근대를 추동시키던 총력전과 그에 따르는 서사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전환적 에너지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위의 세 가지 요소들과 멜로드라마가 혼합적으로 섞여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2년의 6월이라는 재료로 2002년 이후 미래를 위한 담론의 정치학을 구상할 때, 필연적으로 여러 물질들과 요소들 중 어

떤 것을 활성화하고 또 어떤 것을 뒤에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때 나는 6월의 활력과 연행성, 새롭게 열어야 할 공적 공간을 앞에 놓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다. 즉 반권력과 분산하는 힘으로서의 활력과 광장으로 나온 몸들이 벌이는 연희 그리고 전광판이라는 공간이 2002년을 기억하는 축제의 장들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 사회, 급진적 민주주의, 그리고 여성장

2002년 월드컵이 “여성화”된 이벤트가 되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첫 번째로 폭력성이 매우 낮은 홀리건에 대해 우선 여성 등 상대적으로 폭력성이 낮은 집단들이 군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김종엽 22:2002)이 지적되었다. 또 여성들이 축구 같은 공격성이 강한 스포츠를 통해 아주 공개적으로 남성의 육체를 발견하고 즐기게 되었고 이 에로티시즘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되어 있던 오빠 부대의 확산을 불러왔다는 관찰도 있다. (최원식 22:2002)

김현미는 2002년 “월드컵의 ‘여성화’와 여성 ‘팬덤’” (김현미 48-61 2002)이라는 글에서 ‘이번 월드컵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비하에 익숙해 있던 우리 사회가 미처 감지해 내지 못한 여성들의 ‘준비된 파워’를 실감하는 계기’였다고 지적한다. 또 동시에 젊은 여성들의 잠재적이고 준비된 에너지와 능력이 왜 월드컵 때 보여준 성적인 에너지로 분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노동이나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여성들은 변화가 쉽게 오지 않으리라는 인식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 그들의 이런 좌절감은 연애나 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저항성과 전복성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성애나 친밀감의 영역은 그나마 자신의 의지나 감성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여성들의 급속한 성적 주체화는 한편으로는 변혁적 힘을 발휘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 무력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월드컵을 통해 표현된 이러한 이중적 여성의 힘-즉 변혁적 힘의 치환으로서의

집단적 무력감 또는 그 집단적 힘의 치환으로서의 집단적 무력감 -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침투를 가능하게 한 축제 형식 그리고 성적 주체화는 6월의 붉은 물결 속에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담겨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월드컵에서 보여준 여성적 활력은 입김의 아방궁 프로젝트나 군산 매매춘 여성들에 대한 최초의 여성장(女性葬) 그리고 인터넷 상의 페미니스트 사이트들 (아줌마, 달나라 딸세포, 월경, 히스테리아) 등에서 보이는 기존 공공 영역에 비판적인 대항적/대안적 공공 영역으로서의 여성장(女性場)을 탄생시킨 영 페미니스트들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새로운 장과 겹쳐진다.(김소영:2003) 여성장과 축제의 양식 속에서 표현된 여성의 변혁적 활력은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를 넘어 급진적 민주주의와 정치 사회의 틀 속에서 월드컵 이후 한국의 문화운동을 전망케 하는 힘이기도 하다.

김소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여성문화예술기획

〈참고문헌〉

- 김소영 “여성장의 탄생, The Birth of Women’s Sphere “
Inter-Asia Cultural Studies, Routledge, 2003
- 김종엽 외, “월드컵 이후 한국의 문화와 문화운동”, 창작과 비평 2002 / 가을
- 김현미 “2002년 월드컵의 ‘여성화’와 여성 ‘팬덤’”, 당대비평 2002 / 가을
-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월드컵” 당대비평 2002 / 가을
- 조정환 “활력, 권력 그리고 폭력”, 자율평론 2002 / 3호
- 정진웅 “붉은 물결”현상을 통해 본 욕망의 문화정치학, 그 창조와 구성 사이,
당대비평 2002 / 가을

受用에서 受容으로

신동호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서구와 동양을 하나의 스타트라인에 서게 한 것이다. 20세기 모더니티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동양이 서구의 뒤를 쫓아왔다면, 21세기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모더니티 시대의 대안을 동양정신에서 찾음으로써 서구 스스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했다. 우리의 지식사회가 여전히 서구를 受用하며 그들이 폐기한 것들을 놓지 못할 때 서구를 受容한 대중은 2002년 6월, 21세기의 스타트라인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다양성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15년 사이에 놓인 두 6월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1. From the East

“인간 권리에 대한 서구의 자유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개념은 사실 인간학대입니다”라고 말레이시아의 찬드라 무자파르는 말한다. 모더니티 시대 내내 불변하리라 여겼던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은 21세기에 들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이 지구적 가치가 아니라 서구적 가치임을 스스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 침공의 계획에 분주한 미국이 이를 증명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서구적 가치에 목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세기는 동양과 서구의 공생과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좀더 조화롭고 풍요로운 경험을 요구한다. 이럴 때 우리는 낡은 것이라 여겼던 우리의 가치를 그릇으로 삼아 서구를 受容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월드컵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평가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월드컵 개막식의 주제였던 ‘동방으로부터’ 라는 한마디만큼 지난 한일월드컵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AP통신은 개막식을 취재하며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타전했다. “동방으로부터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소용돌이 속에 월드컵이 개막됐다”라고. 세계 언론은 ‘동과 서’가 하나임을 보여주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며 반목과 단절이 하나로 통합되는 행사의 취지를 앞 다투어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알렸다.

그렇지만 여기엔 매우 중요한 코드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From’이다. 왜 ‘From’인가. ‘From’은 보통 출발, 기점을 의미한다. 때로는 출처, 기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 ‘동방으로부터’라는 한마디에는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의

미만 담겨있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월드컵 개막식의 기획자들은 21세기가 동양으로부터 시작됨을 감지했고, 이를 주제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월드컵 기획자들조차 우리 축구가 4강에 들고 700만의 응원이 거리를 휩쓸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히딩크의 Combination이 서구의 Power, 남미의 개인기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리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월드컵이 끝나갈 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기획을 대중의 모습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월드컵을 맞아 앞선 IT기술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에 ‘IT월드컵’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IT월드컵의 성공은 초고속인터넷 등 탄탄한 국내 IT 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여기에 정부가 ‘IT월드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T관련 기업들은 산업발전에 대한 큰 기대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여기에도 기획자들의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월드컵으로의 성공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서구 2500년 사상에 종말을 고하는 고도의 전술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

구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서구의 닫힌 가슴을 개방시켜주었는지도 모른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이후에도 서구는 자신들의 사고 전부인 합리성의 그늘에 묻혀 동양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야 했고 현실의 부를 챙기며 이상을 퍼뜨리고 지배해야 했다. 서구의 축구는 동양의 축구를 이겨야만 합리적이며,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과학은 언제나 동양보다 뛰어나야 합리적이었다. 영원히 우월한 백인은 유색인종의 반항이나 저항 따위에 늘 선민의식으로 관찰해야 합리적이었다. 큰 것은 결코 작은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是非를 가려야 했으며 적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힘을 부여받아야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시비를 넘어서는 경지에 놓여 있었다. Holon은 작은 것 속에도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 노자와 장자는 시비를 부정했고 동양 사유의 습관은 시비를 떠나 있었다. 장자의 한낱 작은 가슴에는 거대한 하늘과 땅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자신 또한 한낱 작은 미물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었다. 합리성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으나 8만장의 신문이 손톱보다 작은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환경이었다.

그랬다. ‘동방으로부터’는 세계인의 눈을 즐겁게 할 쇼가 아니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합리성의 그물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서구를 상대로 한 사상, 철학, 문화적 도전이었고 해방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승부를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 4강으로 일찌감치 결정 내주었고, ‘붉은악마’와 거리응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양정신을 전 세계에 온몸으로 알리며 파란 눈동자의 가슴을是非로부터 활짝 열어주었다. 이번 월드컵은 동양정신의 세계적 표출이며 확산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2. 6월항쟁 세대의 성과와 한계

거리응원의 역사를 지난 1987년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6월항쟁으로 소급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면서 그 시대 젊은이들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2002년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그것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6월항쟁의 역사가 오늘의 응원문화를 낳았다고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다. 현재의 문화는 과거의 모든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6월항쟁의 경험은 권

위주의에 대항한 승리의 경험이며 이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정서까지 바꿔놓았다. 그래서 혁명으로 불릴 수 있을 터이다. 문제는, 거리응원을 6월항쟁 당대의 정서처럼 저항의지와 혹은 개혁의지로 꿰어 맞추는 태도이다. 십 수 년의 세월동안 세계는 냉전종식과 정보화라는 대 변혁을 거쳤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포스트모던한 정서에 적응하고 있다.

6월항쟁 세대는 격변의 시대를 지나왔다. 그들은 이념의 시대를 살았다. 한 시대에 그만큼 사회과학적 혜택을 받은 세대를 역사적으로 찾을 수 없으리라. 사회와 시대, 역사에 대한 ‘분석적 태도’, ‘과학적 분석’, ‘합리적 대안’에 대한 훈련을 거쳤고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세대가 6월 항쟁 세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진보적 태도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서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태도’, ‘서구의 방법으로 우리사회를 분석하고 ‘서구의 방식으로 찾은 대안’.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한가.

요즘도 대화 중에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변증법적으로 말이야!”하는 소리다. 대화 중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적당히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 그 말은 문득 문득 튀어나온다. 그럴 때 ‘변증법’은 전가의 보도처럼

들린다. ‘변증법’을 붙이면 모든 게 증명되고 자신의 말에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대부분 ‘합법칙성’이라는 말이다. ‘합법칙성’, 유물변증법에 의하면 역사는 항상 ‘합법칙성’에 의해 발전한다고 인식했다. 나선형의 구조처럼 인류는 항상 발전하고 분열된 국가는 통일한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여전히 통일은 ‘변증법’과 ‘합법칙성’에 의해 이뤄지는가. 서구적 가치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통일은 변증법적 발전과정이 아니고 최치원의 풍류, 원효의 화쟁이면 안 되는가. 권위에 대항했던 자유정신에는 걸맞았던 이념이었는지 모르지만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휴머니즘과 변증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서구의 철학은 언제나 대립해 왔다. 이성과 감성이 그랬고 미와 추, 합리와 불합리가 그랬다.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相互를 말해왔던 동양철학과 그 근본부터가 다른 가치관이었다. 헤겔은 자신의 뿌리를 그리스 철학에 두고 있었으며 늘 정으로서의 서구, 백인들의 사상을 논리화시켰을 뿐이다. 또한 변증법은 항상 주도권을 다룬다. 이에 반해 동양은 주도권을 다투면 內和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 숨己 혹은 無己라 했다.

“아방이나? 타방이나?”, “통일을 위한 확연한 분리!” 대학 초년병 시절 레닌의

저작을 공부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소리다.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통일과 반통일 이 수많은 구분과 대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적이며 서구의 외디푸스복합체는 事親以孝의 가치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인가?

문제는 6월항쟁 세대가 합법칙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들의 변증법적 가치, 과학적 사회분석은 서구의 휴머니즘 앞에서 줄곧 사회통합보다는 선을 긋는데 관심이 많았다. 민주화를 위한 기여와 자기희생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운동권과 비운동권, NL과 PD의 구분을 여전히 우리사회 분석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혁명적 운동을 통해 학연과 지연을 깬다고 공공연히 말하지만 실은 그것에 더욱 자신을 묶어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지난 시대 6월항쟁 세대가 이론 민주화와 통일의 물꼬를 펴야 하려는 의도는 없다. 단, 지난 시기 6월 항쟁 세대가 대항의 무기로 삼았던 사상과 철학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억으로부터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6월 항쟁 세대에게 운동은 이상이였다. 이상을 구상하고 이상을 실천하려 했다. 이상의 실천에는 항상 현실의 논리가 설 곳이 없다. 또

한 6월항쟁 세대는 서구를 인식하려 했지 해석하려하지 못했다.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은 인식을 접거나 인식의 심화를 위해 유학을 떠났다.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우리 역사를, 자기 스스로를 해석하지 못했다.

6월항쟁 세대는 신세대에게 전혀 신화적이지 않다. 신화란 전설과 틀리다. 전설이 신화가 되기 위해선 여전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6월항쟁 세대는 그들이 가져왔던 변혁운동의 후배들로부터도 '개량적'이란 비판을 수없이 듣는다. 그들이 후배들에게 남긴 것은 자문화의 자긍심이 아니라 서구로부터 빌려온 진보란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이어받은 후배들이 외디푸스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서구의 인식을 통괄했던 '변증법'과 '합법칙성'은 그러나 이미 디지털 시대와 아시아적 가치의 도래와 함께 깨어지고 말았다. 6월항쟁 세대는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다. 혁명은 우리가 거리에 서 있는 동안 286컴퓨터의 조악한 메모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냉전이 무너져가고 우리가 과거를 고집하며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는 동안 혁명은 하룻밤을 기다려 파일 하나를 받을 수 있던 낡은 전화선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결국 디지털과 네트의 혁명은 생활의 방식과 생각

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아시아적 가치는 서구와의 대립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공생을 우선한다. 새로운 세대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안에서 불고 있는 반미열풍은 6월항쟁 세대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앞서 말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합리란 그저 옛 철학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변증법은 서구 철학자의 과거 회상일 뿐이다. 그들에겐 서구가 특별히 위대하지도 본받을만한 국가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6월항쟁 세대에게도 공히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문화정신이다. 6월항쟁 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민족관,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이거나 동일한 형태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꿈에서 깨어나야 하며 새로운 세대와 함께 창조적 문화정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정신 1 - 민족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월드컵을 통해 가장 감명 받고 살갑게 느껴진 일은 아무래도 ‘붉은악마’의 응

원과 전국의 거리를 가득 채운 국민들의 응원일 터이다. 여기엔 IT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멀티비전의 역할이 컸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간혹 어떤 이는 냄비근성을 들어 곧 사라지고 말 흥분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옛 고전 《禮記》〈樂已〉편에 이런 말이 있다. “說之故言之 言之不足故長言之 長言之不足故嗟歎之 嗟歎之不足故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즉, 기뻐하기 때문에 말한다. 말로서 부족하기에 길게 말한다. 길게 말해서도 부족하기에 차탄한다, 차탄해서도 부족하기에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기뻐 춤춘다는 말이다. 이러한 동양적인 문화정신에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나라 안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 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말을 더하면 우리 민족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이럴 때 냄비근성이라는 비판은 반대로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축제를 만들 수 없었던 지난 시대의 불우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응원문화를 두고 ‘신애국주의’라 하는 말도 들린다. 과거의 저항적 애국주의와 차별화된 애국주의를 말하는 것일 텐데 월드컵이라는 전 지구적 축제와 맞물린 민족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태극기를 흔들고 여기에 더

해 태극기로 치장하고 옷을 만들어 입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등장했다. 한편에서는 ‘국기모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신애국주의’는 분명 변해가는 민족주의의 일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오늘날 민족주의는 과연 유효한가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월드컵이 있기 얼마 전인 2002년 3월 11일 <조선일보>가 기획한 ‘지식인 사회 - 이것이 이슈다’의 ‘민족주의 논쟁’ 편이 그 한 예이다. 여기에서 한양대 임지현 교수는 “민족주의가 이제 통합보다는 배제와 억압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기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보편적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임지현의 이 말은 서구의 가치를 동양적으로 치장하는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

서구는 이미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상주의를 세계에 퍼뜨렸다. 이상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르네상스가 가져온 휴머니즘이라는 이상은 현실을 감추기에 적절한 도구였다. 그들은 지금도 Open mining으로 세계평화, 유엔선언을 내세운다. 르네상스의 국제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휴머니

즘의 이상으로 현실을 살라고 주입한다. 그 이면에 감춰진 서구의 모습은 철저히 현실적이다. 현실은 바로 지극한 민족주의이며 지독한 국가주의이다. 세계주의는 이상일 뿐이다. 국가주의를 감춘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서구를 제외한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편입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철저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우리는 지난 월드컵에서 똑똑히 목도했다. “중산층과 상류층은 축구에 관심이 없다”고 능청스레 얘기하는 프랑스의 기소르망이 그랬다. 세계평화와 테러근절을 앞세운 미국의 석유전쟁은 또 어떠한가?

반면에 임지현 교수와 대화를 나눈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다. “민족주의를 반드시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아봐서 그 설움을 안다. 우리 것을 가지고 남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안창호 선생은 민족적 개성을 가지고 세계의 화단에 참여하여 더욱 아름답게 만들자는 ‘꽃발론’을 주장했습니다”라고 말이다. 이만열 교수는 민족주의를 근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서구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남긴 부정적 영향 때문에 약소민족이 주권과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민족주의를 비판

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인터넷 확산 등 억압적 민족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안창호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더 중심을 둔다.

임지현 교수가 주장하는 환골탈퇴는 서구의 논리다. 서구문화는 타문화를 자문화 하면서도 우리에게만 환골탈퇴하라 했다. 20세기는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수많은 오류를 범했다.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서구를 받아들임으로서 우리는 속박되었다.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溫故知新를 말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이 지극한 논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문화정신의 기본은 온고지신이다. 과거의 정신을 해치지 않고 서구 근대정신인 자유평등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불행은 상당부분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월드컵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월드컵은 ‘민족주의가 과연 유효한가’라는 의문에 일침을 놓았다. 거리응원은 억압적 민족주의에서 개성적 민족주의로의 싹을 피웠다. 지배층이 오랫동안 다른 요소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던 민족주의를 국민 자신의 민족주의로 가져왔다. 개인을 소모하고 전체를 위해 희생했던

공동체를 개인의 즐거움을 표출해 낼 수 있는 공동체로 뒤바꾸어 놓았다. 민족주의를 우리식으로 한국적으로 개념을 바꾸었다고 민족주의라 부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서구의 깊은 선민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식인의 사대주의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국경과 문화적 경계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현실적으로는 외적으로 개방성, 내적으로 시민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오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세계는 재편되고 있다. ‘붉은 악마’와 거리응원의 뜨거운 열기 속에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떠올랐다.

4. 문화정신 2 - 受容의 정신과 다양성의 표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 없이 이뤄지는 촛불시위는 양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쪽의 문제는 항상 반미시위로 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미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시위를 대립양상으로 가져감으로서

대중 통합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이다. 여기에는 분명 6월 항쟁 세대의 서구적 가치관이 한몫 한다. 이런 시위 방법에는 미국도 익숙해져 있다. 다른 쪽의 문제는 순간적인 정서분출의 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21세기의 스타트라인에 섰을 뿐 유니폼도, 운동화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 축제의 장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6월항쟁 세대가 서구의 정신을 受用하여 서구에 대항했다면 2002년 6월 세대는 서구를 受容하면서 다양성을 표출했다.

신세대는 내면보다 외양에 관심이 많다. 기실은 이것만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없다. 다양성은 인류를 평등하게 한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의 사고방식(인식론, 합리론)을 돌파하고자했던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표현으로 다양성을 설파했다. 그 후 니체는 그리스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며(“The ancient Greeks were surface out of profundity”) 거기에서 다양한 인간이 공존하며 살 수 있음을 확인했다. 껍데기에 관심이 많을 때 의심도, 이성이 가져온 폭력도, 인종 사이의 우열도 사라지는 것이라 했다.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다. 그 둘을 그냥 인간이라는 말로 보편화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이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이다. 이 둘을 그냥 꽃이라 부르지 말자는 것이다. 역사, 문화, 생활을 전제로 한 해명에서 보편적 결론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편적 결론은 항상 폭력을 불러온다.

2002년 6월 거리의 대중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모인 그들은 무엇이 막혀있는가를 생각했고 그래서 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 서구보다 못한 삶, 서구보다 못한 정치, 서구보다 못한 문화 등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내보인 모습은 ‘저들만큼 살자’라는 초라한 궁색이었다. 대중들은 스스로 ‘저들만큼 못한 것이 뭔데!’라는 자각에 이르러 변화를 찾았던 것이다. 대중들 스스로 찾은 변화에 대한 가치와 목적은 늘 생존 문제와 직결한다. 따라서 대중의 변화는 지속성과 계속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있어 대중은 비로소 서구를 受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20세기 한반도는 受用을 맹종했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황석영의 《손님》은 그것을 실체화해서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도 무엇이 막혀서 변하는가에 성실하지 못했다. 중국의 변화에 기대어 유교정신을 왕권의 정신으로 受用했다. 전통의 가치인 홍익의 정신 뿐 아니

라, 불교적, 도교적 가치를 버림으로써 유교정신을 受容하지 못했다. 지금의 우리 또한 앞의 모든 정신을 버리고 서구의 자유평등정신을 受用함으로써 지속성에서 실패했으며 갈등을 야기했다. 자유평등의 사유법칙은 이원적 是非의 사고다. 모순, 부정, 대립의 절대정신(유심변증법)과 세계인식의 역사적 총화(유물변증법)로 세계를 단정 짓거나 뒤편길로 몰아넣었다.

지금 우리는 낡은 가치라 여겼던 아시아적 가치, 동양적 사유방식을 근간으로 서구의 정신을 受容할 때다. 2002년 6월의 정신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었으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좀 더 완전한 지역색, 세대의 역할 등을 드러내고 대중 한사람 한사람이 세계의 주인임을 천명했다.

대중들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한 6월 광장은 다양한 색깔과 취미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지식인 사회의 반성과 가치창조가 시작되어야 한다. 6월항쟁 세대 또한 서구적 가치의 受用이 21세기에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대중의 창조적이며 온고이신의 정신에 자신들의 순수한 정신을 보태야 하리라 생각한다. 출발의 총소리는 벌써 울렸다. 잡종화된 서구문화는 현재의 최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한다. 2002년 6월 세대의 힘찬 출발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신동호 / 시인

참여와 감성의 문화정치 광장세대를 위한 문화운동

이동연

1

2002년 12월 14일, 광화문 밤하늘을 흰히 밝힌 10만개의 촛불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의 넋을 기리는 혼불이었다. 꽃다운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미군들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평화적 행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미대사관 항의방문, 천주교사제단들의 단식농성, 대중연예인들의 항의식발, 그리고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추운 날씨를 이겨내며 세종로 공간을 전유하고 있었다. 권위와 억압의 상징이었던 세종로는 평화와 평등을 원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전국을 붉게 물들게 했던 축제의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거리응원의 진원지 광화문 일대는 한국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수 십 만명의 자발적인 시민들로 가득했고, 역사상 처음 경험했던 거리의 카니발은 시민의 힘, 광장의 힘을 새삼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애써 외면하려 했던 사람들은 월드컵이라는 전지구적 축제가 끝나면 광화문은 다시 권위의 공간, 차들의 공간으로 되돌아 갈 것이고,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나올 일 없이 일상의 이기심에 빠져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이 회귀하듯' 시민들은 미군들의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소파의 전면개정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축제에서 시위로의 자유로운 전환, 이것이야말로 광장이 왜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광장이 사건 속에서 문화와 정치 공간으로 교차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주체들의 탄생을 선언했고, 이들의 힘은 다시 현실정치의 장에 결집하여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세대의 자유로운 감수성이 경직된 기성정치에 균열을 일으킨 것, 극적인 반전과 서스펜스로 막을 내린 ‘대선’이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개인적인 소감이다.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그리고 지지철회 사태에서 극적인 승리의 전선을 가로질러간 노무현의 정치적 오디세이는 놀랍게도 관행과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감수성의 자원을 내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무현의 승리가 젊은 세대의 승리, 인터넷의 승리, 소신과 원칙의 승리로 설명한다. 또한 지역주의와 보스정치의 몰락, 관권, 금권정치의 소멸을 앞당겨 새로운 정치개혁의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노무현 승리의 표면적인 요인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재된 사회적 에너지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승리의 요인으로 세대정치와 인터넷 정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승리

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 30대가 과연 동일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비의 황태자’요, ‘혁명의 금치산자’였던 청년세대들이 돌연 정치적 아나키스트로 돌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인터넷의 테크놀러지가 네티즌의 유목적인 행동을 곧바로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반화된 요인들이 노무현 승리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386세대가 주를 이룬 ‘노사모’의 정치개혁 의지와, 변화와 속도로 무장한 디지털 N세대들이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세대적 공감대 때문이 아니라, 현실정치를 산화시키려는 감수성의 정치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볼 수 없는 20, 30 세대가 노무현의 문화전략 안으로 결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강력한 문화적 동화력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식 문화전략의 정치성은 정치적 개혁의 열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386 세대와 N세대들의 정치적 이질성은 오히려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치가 문화에 의해 망각되기보다는 문화를 통해 폭발한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386세대들도 사실 문화적 향수가 강한 세대이며, 이른바 ‘서

태지세대' 라할만한 20대 후반의 IT세대들은 90년대 소비문화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주체들이다. 그리고 본격 디지털문화에 접속된 20대 초반의 N세대는 자유로운 문화적 감각을 향유하는 매니아세대이다. 386세대가 문화적 향수를 통해 정치적 폭력을 치유받고 싶어했다면, N세대들은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통해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고 싶어했다. 결국 문화의 힘이 정치적 선택의 유연함의 원천이 되었던 셈이다.

문화세대들은 서태지와 월드컵과 촛불시위를 거쳐 마침내 동시대 삶의 가치관을 전복시켜버릴지도 모르는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20, 30 세대의 연대는 정치의 연대가 아닌 문화의 연대이며, 문화적 힘이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다. 68년 프랑스 혁명이 청년세대의 문화적 열정에서 비롯되었듯이 낡은 정치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청년세대들의 의지들은 새로운 문화적 감각을 열망하고 있었던 셈이다. 세대의 힘은 문화의 힘이다.

감수성은 몸에서 베어 나오는 열정의 에너지이고 감각의 자율성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측 가능할 법했던 변절의 꿈수들이 여지없이 무력화한 것은 낡은 몸의 관습들을 바꾸려는 감성의 힘, 욕망의 에너지가 젊은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승리는 정확하게는 청년세대가 아니라 감수성의 승리이며, 인터넷 테크놀러지가 아니라 그 테크놀러지를 관통하는 주체의 자율성의 승리이다. 문화적 감수성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다. 문화가 정치에 종속되고, 감수성이 이성적 논리에 의해 미신으로 배제되는 사회는 이제 우리가 탈주해야 할 근대적인 영토이다. 대선에서의 극적인 반전에서 발견되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바로 주체의 문화적 감수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붉은 악마의 '더러운' 열정에서 국민(시민)주권과 평등을 외치는 광화문 촛불시위로, 다시 정치개혁의 의지로 결집되었던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격랑 속에는 결국 '공간과 주체의 새로운 구성'을 요구하는 사건들의 계열이 존재하고 있던 셈이다. 주체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가, 공간은 주체들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배치되기를 원하는가. 주체의 행동과 공간 배치의 정치학은 우리 시대 새롭게 제기되는 문화정치학의 실천적인 화두가 아닐까.

우리에게는 “마당”이라는 소중한 유산이 있다. 그곳은 민초들의 목소리가 숨어있고, 일상적 이야기와 삶의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며, 양반을 놀려먹는 말뚝이의 감칠맛나는 흥내도 볼 수 있는 곳이다. 마당은 차이가 있지만 차별하지 않는 곳이며,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해학과 풍자가 넘쳐나는 곳이다. 러시아의 문학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이러한 민중들의 광장의 문화를 “카니발리즘”으로 명명했다. 카니발리즘은 서로 이질적인 주제들이 모여서 다성적인 목소리를 발산하는 것, 어린이, 노인, 앓은뱅이, 장님 등이 한 데 모여 “유쾌한 상대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장터이다.

유럽은 수많은 자생적인 카니발을 만들며 광장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우리의 억압적 근대사는 우리 고유의 마당과 장터의 문화를 압살하고 말았다. 해방 이후 광장과 거리는 지배자의 공간이었거나, 지배자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시위의 장소였다. 80년 5월 광주의 봄, 87년 민주화항쟁, 그리고 92년 분신정국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궤적에서 거리는 신체의 자유와 쾌락의 장소이기보다는 지배와 저항이 교차되는, 이념의 수호와 생존권 사수의 장이었다. 풍자와 해학

이 넘치는 마당의 기억은 소멸되고, 대신 생존을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비장한 출정소가 된 것이다. 물론 시위도 축제일 수 있고, 축제도 시위일 수 있지만, 지난 수십년 간 반복된 시위의 현장에는 지배의 공간을 유쾌하게 전도시킬 수 있는 카니발리즘이 부족했다. 그나마 민주화항쟁의 의연한 목소리조차 사라지고, 지금 거리는 숨막히는 경쟁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한국은 축제없이 일만하는 나라, 일만해도 쫓겨나는 나라, 쫓겨나도 제대로 놀지 못하는 나라로 뇌리 속에 각인된 듯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놀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일년에 열리는 축제는 어림잡아 700여개가 넘는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축제와 행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국국제영화제, 과천마당극제, 춘천인형극제, 경주문화엑스포, 고양세계꽃박람회,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규모의 축제에서부터, 단오제, 춘향제, 대구약령시축제와 같은 전통문화축제, 그리고 진도영등제, 하동야생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풍기인삼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중소규모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토착지역축제에 이르기까지 한

국은 축제의 나라, 축제의 낙원처럼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한국의 지역문화축제들은 서로 엇비슷한 포맷과 진행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예산낭비, 대안적 모델개발의 부재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높여주는 축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축제는 어설픈 지역경제살리기 프로젝트로 애용된다. 특정 이벤트 회사가 똑같은 축제행사를 독점하고, 각종 아가씨선발대회, 인가가수 초청공연이 주요 행사가 되며, 수백억의 예산이 지출된 채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홍보의 장이 되는 것이 우리 축제의 현실이다. 축제는 이제 거리의 공해이자 시민동원체제의 반문화적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상업화된 축제의 범람은 지난 81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지배의 유연화 전략으로 만든 “국풍81”이란 성가신 관제문화행사보다 오히려 더 비극적이다. 그것은 더 철저한 시민사회의 배반이며, 경제에 대한 문화의 굴종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연대에서 작년에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지역문화 축제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 중에서 ‘축제의 관변성’

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만큼 지역문화축제는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문화축제는 대부분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행해지는 축제가 많다. 축제 속에 이렇할만한 특별 이벤트가 없어도 지역시민들이 중심이되는 일상적인 카니발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축제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생각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작년 월드컵 거리응원이 특별한 이벤트없이도 유례없는 도심 속 카니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거리응원 안에는 서로 다른 세대와 다른 삶의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응원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동등한 자율성이 보장받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축제들은 대부분 특별하고 복잡한 행사나 이벤트없이 단순하고 명료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년에 지역 시민들이 한번씩 모여 그 지역 전통의 음식을 함께 즐겨먹는 행사나, 도마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난장을 벌이는 축제나, 도심에서 소풍이 행사를 갖는 축제나 모두 시민들이 특별한 이벤트없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월드컵 거리응원이 갖는 교훈은 축제를 스

스로 자유롭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는 데 있다. 붉은 색 티셔츠와 머플러, 페스페인팅을 포함한 기발한 응원소품들을 들고 거리응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모두 축제를 준비한 주체들이다. 시민들이 축제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주관하는 조직들이 이미 만들어 놓는 자리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객체로 머무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준비하고, 축제의 우발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월드컵 개막에 즈음해서 축구 역시 하나의 상업적 이벤트로 변질된 감이 없지 않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붉은 악마로부터 촉발된 시민들의 열정적인 축구사랑과, 자본이 지배하는 도심 거리를 쾌락의 장소로 전도한 “붉은 응원”의 열정은 전국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카니발을 만들어냈다. 98년 프랑스가 우승할 당시 프랑스 시민들 모두는 광장에 모여 밤을 새며 광란의 축제를 즐겼고, 2001년 터키의 갈라타사라이가 ‘우에파 컵’(UEFA) 우승을 차지하고 나자 터키 시민들이 이스탄불 광장에서 승리의 파티를 열었듯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마당의 난장을 찾을 때가 되었다.

축제가 시민들이 살맛나는 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축제는 닫혀진 공간, 구획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공간, 일상적인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규모 축제들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고, 그 곳에서 건물과 행사장을 별도로 짓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발바람, 투기바람을 낳고 행사가 끝나고 난 후 활용방안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축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걸어다니는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월드컵 거리응원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도 일상적으로 활보하고 다니는 거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만들어 기획하는 축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축제들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고, 시민들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도심 카니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청년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들이 많이 기획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축제는 대부분 장년들이나 가족중심의 참여가 주를 이룬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세대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축제들은 장년 중심의 축제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청년세대들의 역동적인 참여는 난장에 대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린지페스티벌,

레이브파티, 퀴어문화제 등 청년세대들과 소수자들의 자발적인 축제들이 도심 속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축제의 민주적 참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세르토의 지적대로 도시는 ‘개념도시’와 ‘발화도시’가 있다. 마치 언어학에서 언어체계로서의 랑그와 주체의 발화행위로서의 빠롤이 있듯이 규율, 법칙, 규범으로 존재하는 도시 체계와 느낌, 표현, 감정으로서의 도시 생활세계가 존재한다. 월드컵기간 광화문, 시청에 모인 대중들을 먼 상공에서 보면 공포스러운 전체주의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실제 그들이 모여있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질적인 주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다중의 세계가 발견된다. 도시공간은 개념도시에서 발화도시로의 전환을 일시적으로 우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일상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인내해야하는 수고로움이 동반된다. 또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 개념도시로서의 성격은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체가 그 개념도시의 틀을 무시하고 자신의 발화행위를

자유롭게하는 개별적인 실천만으로 도시 안에서의 생생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발화행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념도시의 재구성에 대한 실천들은 도시공간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 공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할 수 있다. 물론 도시공간 체제의 재구성과 제도적 실천이 주체들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광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실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광장만들기 프로젝트는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적인 기획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주체의 자율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조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연대에서 세종로 광화문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려는 기획이 지식인들의 개념적 사고속에서만 작동된 계몽주의적인 논리이거나, 소위 중심공간의 재편이 공간의 일상적인 재편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착각을 동반하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

년 한에서는 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천토픽을 제기하기 위한 타당한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런던에는 트라팔가 광장이, 로마에는 스페인광장이, 파리에에는 콩코르드광장, 북경에는 천안문광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광장이 없다. 이제 서울에도 먼 옛날 육조거리를 복원하고 새로운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광장의 탄생이 간절하게 필요할 날이 오지 않았나 싶다. 세계의 모든 주요도시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세종로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보행공간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정부행정기구와 미대사관이 있는 세종로는 시민들의 금단의 공간인 셈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선공약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청와대에서 세종로까지를 문화역사공간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만일 청와대가 대전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꿈꾸던 세종로 문화공간을 앞당겨질 수 있다. 청와대와 그 아래 사간동, 가회동 일대를 한국의 역사적 전통이 살아숨쉴 수 있는 전통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금의 경복궁터

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며,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이전될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미대사관 건물을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변형시키면 광화문, 세종로 일대는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문화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정부종합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국립도서관을 만들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건물에 박물관 공연장 등을 건립하고 미대사관 자리에 국제문화교류센터 등을 건립하여 서울의 도시 한복판이 문화와 사람으로 채워지는 날을 꿈꾸는 것도 좋음직 하다.¹⁾

1) 문화연대에서 제안한 세종로 문화광장만들기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는 우선 현재의 주변 상태를 그대로 두고, 단지 가운데 녹지 부분을 없애고 가운데 절반 50미터만을 차도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월드컵 거리 응원 때와 동일한 규모와 형태로 세종로의 절반을 상설광장으로 전환하여, 좌우의 세종문화회관과 문화부 및 상단의 공원 부분과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와 자유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현재 리노베이션 계획 중으로 별관 테라스를 오픈 카페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바 이를 광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노천카페를 구성해야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언제나 즐거운 공간으로 전환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상설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이럴 경우 현재 세종로 진입로 중앙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다른 곳(현충사나 독립기념관 등지)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종로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군사문화의 상징이 부적합하게 권위주의적인 형식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단계로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이면 도로와 교보빌딩/미대사관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 방식의 차도로 전환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대체함으로써(이럴 경우 이면도로의 부분 확장 및 일방통행식 교통체계의 정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종로 도로 전체를 차없는 광장으로 상설화하는 것이다. 3단계로는 세종로 주변의 정부종합청사, 미대사관, 문화부 건물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기무사 건물 등을 모두 다른 곳(과천 또는 대전)으로 이전하고, 이 시설들을 개조하여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영상아카이브, 국립영상미디어센터, 국립자연사박물관, 조선왕조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으로 기능전환하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하여 이 일대를 명실상부하게 수도의 중앙문화지구로 전환하는 일이다. 청와대와 기무사 부지 역시 공원 겸 박물관 형태로 기능전환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서울 도심의 역사성 회복과 세종로 일대의 문화지구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적지에서 안국동으로 이어지는 차량 동선을 지하 차도 형식으로 전환하여 경복궁에서 세종로로 보행자가 직접 걸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시설들의 기능전환을 위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국가정책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런던, 베를린, 파리, 워싱턴 광장과 같은 문화광장 사례 참조)

세종로 문화광장의 복원은 잃어버린 우리 마당의 기억을 되찾는 위대한 사역이며, 동시에 동시대 시민주체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발화행위들을 생산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를 근대유산박물관으로, 전국군기무사 자리를 아이들의 문화놀이터로, 세종로 일대를 차없는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권위와 지배자의 터에 자유롭게 활보하고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는 날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대사관 때문에 늘 보행이 불편했던 때를 회상할 날이 조만간에 올 것이다. 세종로 문화광장의 사역은 이제 미군들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역사적 치유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붉은 악마의 전설을 떠올리며 다시 세종로 문화광장에 모여 수백만의 시민들이 문화적 카니발을 재현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으로 전환되길 꿈꿔보자.

4

작년 6월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던 비밀의 열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오래동안 억눌려왔던 지난하고 따분한 삶의 신경계를 건드

린 것, 그것이 비밀의 열쇠가 아니였을까.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광적인 응원을 보면서 그 안에 축구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과잉된 나르시시즘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동안 억압받아왔던 감성의 자유를 위한 급진적인 몸부림이었다. 축구는 무의식 안에 잠재되었던 우리 몸의 자유와 광장의 쾌락을 일깨운 것이고, 승리는 그러한 억압된 욕망을 “거리”라는 텍스트 바깥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카니발의 열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감성이 월드컵을 계기로 새롭게 생겨났다기보다는 한동안 잠재된 억압이 특별한 계기로 인해 폭발해서 생긴 것이다. 물론 한국이 월드컵 첫승의 한을 풀고, 내친 김에 기적같은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시민들의 열광적인 응원신드롬의 계기가 된 감도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카니발의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잠재력이 학교, 가정, 직장과는 같은 자신들의 따분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리문화의 반란을 주도한 주체들은 대부분 청년세대들이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 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거리문화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들은 이전부터 포래문화를 형성해왔고, 자신들의 개성과 스타일

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거리응원에 참여한 연령비율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일탈적인 행동을 선보였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자유에 대한 취향과 스타일이 기성세대와 분명한 구별짓기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이 거리문화의 활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보통 방송과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거리응원전의 풍경들을 하나로 설명하고자 한다. 예컨대 “전국민이 하나된 축제의 장”,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 응원의 물결” 등의 카피를 보면 거리응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하나의 주체’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응원에 참여한 주체들을 공간²⁾과 시간³⁾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그 안에 많은 차이와 모순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가 끝나고 해산하는 과정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광화문을 빠져 나가는 순서는 대체로 들어오는 순서와 정반대이다. 적어도 시간적 제약을 덜 받는 토요일의 경우 광화문 주변을 서성거리는 세대들은 대부분 중학생들과 고

등학교들이 지배적이다. 밤이 되면 20대들 중심으로 광화문 일대 거리에 남게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집으로 귀가하거나 일부 소수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폭주를 하러 자신들이 사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 도심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도심거리를 새벽까지 남아서 서성거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이들이다. 20대들은 몇몇 친구들과끼리 가볍게 뒤풀이를 하고 각각의 관심 영역으로 해산하는 반면, 10대들은 새벽까지 서성거리면서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에게 거리에서 일탈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2) 지난 월드컵에 있었던 거리응원 중에서 광화문과 시청의 공간을 특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 6월 22일 스페인과의 8강전이 열린 토요일 광화문 사거리에는 아침부터 많은 응원인파들이 몰려왔다. 제일 먼저 광화문을 찾는 사람들은 상인들과 이벤트 행사요원을 제외하면 붉은 악마 회원들이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거리응원에 사용할 도구들과 장비들을 점검하고 세팅하며 아침일찍부터 동아일보 사옥 전광판을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대체로 시간대

별 주체들의 참여가 정황한 것은 아니지만,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다. 토요일 학교가 월드컵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터라, 중고등학생들은 오전부터 또래들끼리 모여 스크린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전 11시 전 후에 광화문을 찾아온다. 12시에서 1시쯤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20대 초중반 세대들이 자리를 메운다.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5-10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몰려가는 측면이 강한 반면, 20대 대학생들은 2-4명 정도로 소집단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시가 지난 후에 직장인들 중심의 화이트 칼라 세대들이나 가족단위 세대들이 참여한다. 또한 동일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면, 광화문은 시청보다 훨씬 모이는 속도가 빠르다.

영역	광화문	시청
발생배경	자발적, 자생적	계획적, 의도적
구성주체	10-20대 청년세대	30-40대 직장인·가족
공간선택	붉은 악마	서울시, SK
시간사용	집합은 빠르고 해산은 느림	집합은 느리고 해산은 빠름
성격규정	청년들의 광화문 습격사건	서울시의 시청앞 열린음악회

월드컵 응원을 거쳐 미군장갑차에 압사한 여중생을 추모하고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시위를 지나 대선 기간을 통해 정치적 파위를 자랑했던 청년세대, 혹은 20,30세대들의 주체형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한 목소리, 단결된 집단의식을 보여주는 것같지만, 다양한 차이를 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바의 일치된 어떤 이상과 방향은 존재한다. 더군다나 그것은 대단히 거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파위를 갖고 있다. 수백만명이 동일한 복장과 구호를 격렬하게 외칠 때도 그랬고, 1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라고 한 목소리를 낼 때도 그랬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노무현을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집단적 의지의 관철방식도 그랬다. 그래서 방송과 언론은 대선이 끝나고 20,30 청년세대들의 강력하고 집단적인 힘을 주목하여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기획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행동이 우리사회의 주류를 바꾸게 만들고, 새로운 사회적 에너지로 승화되고, 그리하여 이른바 W세대니, R세대니, 20,30세대니 하는 기표가 과잉되게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범하게 되는 동일성의 정치학은 사실 우

리에게 식상하고 배타적인 세대교체론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 세대들의 동일성의 정치가 차이의 정치, 타자의 정치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급진화하는 운동이다.

나 역시 편의상 ‘광장세대’라고 했지만, 이 기표가 의미의 논리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광장세대라는 기표는 일반적 기표나 보편적이고 싱거운 말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성을 상징한 기표인것만큼은 틀림없다. 광장세대는 거리를 좋아하는 세대,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세대라는 기표 그 자체에 대응하는 기의를 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표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기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세대는 사실 광장의 세대이기키는커녕, 밀실의 세대, 방문화의 세대, 탈정치의 세대라해야 마땅할 것이다. 광장의 세대라는 기표는 좀더 특정한 정치성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정치성은 다중의 정치이고, 소수자의 정치이며, 타자의 정치이다. 집단적 행동의 대표적인 사건 들 안에서 차이와 타자의 계기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월드컵’, ‘촛불시위’, ‘대선’이라는 거대한 사건 안에 광장세대의 주체형성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읽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반미주의, 비미주의, 반반미평화주의의 이견들. 노사모386세대들의 민주주의적 희망과, 문화혁명의세대인 IT세대들의 자유주의적 욕망, 그리고 엘리트주의의혐오와 온라인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N세대들의 비선형적 참여의 스펙트럼들. 물론 그러한 차이의 정치적이나 타자의 정치학을 가로지르고 교감하는 “분자적 선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사건의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그 분자적 선분은 바로 감수성의 정치이다. 결국 광장세대를 위한 문화운동은 감수성의 정치이며, 감각적 자율성의 극대화이다. 차이와 타자를 연대하게 만드는 것이 감수성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이 동 연 / 문화평론가, 서강대 강사

6월대중을 “애도”하고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선

전효관

1. 던져야 하는 질문은?

〈6월대중과 6월축제〉라는 구상은 흥미롭다. 이 구상에서 광장의 흥겨움과 즐거움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구상의 ‘정치학’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는다면 또 단조로운 어떤 이야기만을 생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6월축제의 정치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는 6월대중을 분석해달라는 요구에 거슬러 이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싶어진다. 이미 “세대 혁명”, “인터넷 세대의 승리” 등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세대 혁명이 사실인지, 인터넷 세대의 승리가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월드컵과 촛불시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의 현상에서 이런 규정 자체가 스스로의 규정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이런 식으로 범주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세대 교체로 단순화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사회적 포지션의 차이를 숨겨버릴 수 있고, 비록 잠재적이지만 새로운 주체 형성의 경험을 또다른 단일한 욕구로 포섭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월드컵,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주체는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 새로

운 주체의 새로움은 다중적이고 탈중심적인 주체라는 점, 그리고 구성과정에 있는 분열적인 주체라는 사실일 것이다. 그 가능성은 지난 몇 번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율적 결사로 나타났다. 지금의 문제는 그 자율적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이다.

역사를 잇는 것은 의지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석을 통해 역사를 잇는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1987년의 경험과 2002년의 경험을 ‘발전’ 이나 ‘확산’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그 사이의 차이를 어떤 ‘대조’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선명하기는 하지만 내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에 유용하지는 않다.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을 확인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 ‘정치적’인 질문이다. 문제는 이 정치적인 질문에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과 대질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문제일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역설적으로 1987년과 2002년의 간극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고 또 유사한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닐지 숙고해보자고 제안하려고 한다. 왜냐면

역사가 무엇인가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균질화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는 아니라는 정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법적 관념과 정치적 구도 내에 한정되지 않도록 대립의 축을 확산시켜나가지 않는다면, 각각의 주체가 자신의 현장 속에서 급진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치와 사회운동과의 긴장관계를 소멸시킨 채 대중의 욕망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2. 1987년과 2002년 사이의 유사성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놀라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놀랐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1987년초 운동집단은 운동의 결과에 대해 그다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민주 / 반민주의 구도가 유효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대중의 능동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의 과정에서 놀라운 대중운동의 힘이 분출하였고 직선제 수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

상적으로 학생운동과 화이트칼라의 저항으로 이어졌던 1987년의 힘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아마 촛불시위, 월드컵,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놀라움 또한 1987년의 놀라움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들은 월드컵을 거치면서 줄어들었고 대신 그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은 대선 직후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러한 정황은 사회적 수준에서 대중의 힘에 대한 예찬이 뜨거웠던 것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상황도 유사해 보인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수용되고' 시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잠잠해질 때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정치 공간 내에 배제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격하긴 했지만 곧 마무리되면서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했다. 쟁점은 민주화운동을 해 왔던 야당인사들의 당선 여부였고, 어떤 점에서 쟁점은 아주 순화되었다. 민주화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라는 논의의 축이 정립되면서

노동자투쟁은 고립되는 양상마저 드러났다.

2002년 상황으로 돌아오면 노무현이라는 상징의 성공은 분명 새로운 연대방식의 힘,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상징의 성공이 타자에게로 다양한 욕망이 수렴되면서 '개혁'이라는 뭉뚱그려진 상징적 변화로 치환될 위험성도 그 때처럼 존재한다. 6월 대중이 단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의 요구는 사회적으로는 잠재되어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조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 노사모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억압과 탄압의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억압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성장한 세대들보다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세대들의 지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을 조금 낙관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하다. 말하자면 억압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포지션이 될 때 새디스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세대 변화로 이야기되는 지금 그 세대 변화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세대 변화는 많은 것을 함축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문제는 사회적인 세대 변화와 정치적 세대 변화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적인 세대 변화는 민주화 세대에서 자기표현의 세대로의 변화를 함축하지만, 정치적 세대 변화는 권위주의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의 변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지체 현상은 민주화 운동 세대의 새로운 학습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쟁점을 포함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 세대가 ‘축제’라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자유로운 공간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민주화 세대가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구상을 직접 적용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내 일부를 중심에 포섭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좀 위험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정치와 관료사회 내로 진입한 일부 ‘민주화운동귀족’의 경우 사회운동의 일부를 주변화하면서 대중을 자기 편으로 자의적으로 인용할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않다.

3. 대표하지 말라, 스스로 말하게 하자.

그럼에도 1987년의 대중과 2002년의 대중은 다를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라는 이야기는 추상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문제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대중의 분포가 다양하게 확산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특성이 매개되고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대중을 타자로 분석하는 위험이 있지만, 2002년의 대중은 정치와 사회운동과의 직접적인 매개가 없이 형성된 좀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라는 특성이 있다. 2002년의 대중은 정당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운동의 영향력 내의 대중이 아니다. 월드컵에서 드러난 것은 즐거움을 창출하는 대중, 규율적 실천에서 벗어난 대중, 문화적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난 대중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인적 욕망과 쾌락을 광장에서 드러냄으로써 공공성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이념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치적 시민에서 스스로 기획이 가능한 문화적 시민으로, 중심에 의해 동원되는 대중에서 탈중심화된 자율공간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대중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02년의 대중은 쉽게 대표될 수 없다. 386 세대 중심의 정치적 구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능동적인 호응을 받거나 생명력이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혁신의 가능성이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권력을 해체하는 개혁 주체로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빛나갈 가능성이 크다. 386중심의 정치 구상의 한계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중심의 힘을 여전히 과신하는데 있고 중심을 재구성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존재한다. 이러한 중심에 대한 집착은 탈중심화하는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과 만날 지점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2002년 6월대중의 성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이 형성한 '광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양함 그 자체로 존재하는 광장, 말의 금기가 사라진 광장이 필요한 것이다. 말의 증식 속에서 자율적 연대가 가능해지는 다양함의 체험이 가능한 광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 광장에서 다시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 탄생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광장의 존재는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주체가 기존의 주체를 배제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 광장에서는 기존의 정치화된 386세대에 대한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양함의 체험을 통해 자신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세대 간 만남은 가능해질 것이고 세대라는 텅 빈 공간에 내용을 채워넣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주체들을 볼 수 있고 서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광장의 의미였고 여전히 유의미한 의미일 수 있다.

4. 난장이 펼쳐지는 광장의 기획

6월대중은 누구인가의 질문에 과연 누가 답할 것인가? 스스로 답하게 하기 위해 광장이 열리면 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축제 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율적인 기획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한다. 네트워크 시대를 사는 대중은 전통적인 관념의 조직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광장의 기획과 축제 기획은 달라져야 한다.

놀 수 있는 꺼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공간에서 놀아본 사람들이 초대

되면 된다.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부터 홍대 앞의 클럽 밴드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카니발이 벌어지고 전광판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관한 1인발언들이 이어지는 광장, 밤새 테크노 춤판이 벌어지고 미친 듯 놀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한 것이다. 테크노 춤판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전통놀이를 하면 되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끼리를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지원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386의 벡타이와 염색을 한 젊은 세대가 어울리면 더 좋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과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어도 좋고, 어쨌든 이런 저런 다양성이 충분히 펼쳐지는 광장이 있으면 된다. 이 광장에서 반전 콘서트를 해도 좋고, 마포 사람들은 성미산 지키기 서명을 받아도 되고,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 된다.

이럴 때 광장의 기획은 6월대중을 살려낼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다. 탈중심화되고 분화된 자율공간들의 축제를 통해 6월대중은 다시 의미있는 주체일 수 있다. 지금은 예상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가능성이 전개될 수 있

는 어떤 판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의 구획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 새로운 주체' 들'의 축제가 펼쳐지면 충분한 것이다.

그것은 기획자의 의도를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해야 한다. 1987년과 2002년 사이의 15년이라는 간극은 적어도 새로운 주체' 들'을 구성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금 다른 중심에 의해 지식의 '대상'으로 파악되어 다시 규율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이 고려된다면 6월 대중의 광장과 축제는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전 효 관 / 서울시 하자센터 부소장
junk@haja.or.kr

디지털, 그래서 놀이성, 그리고 월드컵

최혜실

1. 6월의 대중은 어떻게 모였는가?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함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철부지인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토록 질서정연하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토록 많은 인구가 광장에 집결하여 노는 문화가 한국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당시 이들을 집결시킨 힘의 근원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의 발달이었다. 전광판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전광판 없이 시청 앞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자, 지금, 문학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같이 응원합시다"하면서 열광할 수 있었을까? 월드컵 기간 내내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집이나 상점의 대형 디지털 화면, 길거리 곳곳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다. 기차나 택시에서도 소형 액정 화면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직 생중계가 불가능한 지하철에서 어떤 시민은 5분 간격으로 부인에게 무선 전화를 걸어 경기 진행을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서, 저기서, 이 무수한 영상의 폭격 속에서 어느덧 우리의 뇌리에 월드컵은 환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설사 이미지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의식에는 내내 지금 이 순간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젊은이들을 시청 앞에 모이게 해준 원인 중 중요한 부분은 전광판과 인터넷과 무선전화였다. 디지털 매체가 가져다 준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은 온 라인에서의 연결이 오프 라인에서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모임의 과정과 정보 통신이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월드웹은 이성과 감성, 놀이공간과 생활 공간이 모호해져 버린 이 시대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여기에 정보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와 이 시대 이 공간에 팽배한 ‘놀이성’이 어우러져 6월의 대중을 창출해 내었다.

2. 정보 통신의 발달과 감성의 등장

1) ‘정감적 공동체’의 형성

지금 인터넷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는 ‘엽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엽기는 원래 ‘기이한 일이나 물건을 즐겨서 좇아다님’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최근에는 황당한 일, 튀는 일, 잔혹함, 구토, 우스꽝스러움 등의 의미가 섞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포와 잔혹’, ‘재치와 유머’의 양극단을 오가는 이 ‘엽기’의 표현은 다양하다. 요술 상자에 들어간 캐릭터가 두 동강이 나 피흘리는 잔혹한 장면에서부터

변기에 절구질하는 엽기토끼로 기성 세대의 관습화한 문화적 감수성을 패러디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 규정할 수 없는 엽기는 ‘아ㅎㅎ’의 용어로 설명된다.

이 용어는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파는 웹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엽기 갤러리에 올려진 사진에서 시작된다. 어떤 남자가 여자 동상을 안고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위의 ‘아ㅎㅎ’란 감탄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혹은 네티즌의 감수성의 핵심을 이룬다. ‘아ㅎㅎ’는 무엇인가 좋은 것, 신기한 것을 보았을 때도, 어이없을 때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도 적용되는 단어이다. 이 무의미한 말은 마치 선문답처럼 의미 없음에서 의미 있음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 노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행자와 같은 ‘ㅎ자’이다. 이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붙여 사이버 커뮤니티의 통용어로 만든다. ‘이곳에 개똥을 싸우지 마세요’란 벽보 사진에서 ‘싸우다’는 ‘싸게 하다’, ‘리플 등을 달게 하다’, ‘어떤 행동을 취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처럼 가벼운 농담, 황당함의 방식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이나 부정할 수 있는 ‘무정형’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가볍게 흘러 다니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분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 초 미국 빙상 선수 오노의 금메달 탈취 사건은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고 브리짓트 바르도의 개고기 파문 또한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당시 엽기의 특성인 재미, 기존 의미의 해체가 현실 풍자와 만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엽기’ 적인 그림들이 많이 올랐다. 영화 <101 마리 달마시앙>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브리짓트 바르도가 보양탕 선전을 하는 내용으로 바꾸거나 미군 전차에 오노가 깔리는 합성사진으로 미군 전차 사건과 오노 사건을 결부시켜 풍자하는 것 등등...

이처럼 처음에는 가벼운 패러디, 재미에서 시작한 온라인상의 민족주의, 반미의 감정이 어느 순간 ‘촛불시위’란 현실 세계의 사건으로 증폭되어 버렸다. 대표적 엽기 사이트가 되어버린 디씨인사이드에서 한 네티즌이 촛불 시위를 제안한다. 이미 축적된 에너지는 이 제안을 촉매로 대한민국의 광장들을 다시 뒤덮었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준다.

2) 영상성의 대두와 감성의 등장

문자와 영상의 차이는 다양하다. 첫째, 문자 인식은 일반적으로 좌측에서 우

측으로 해독하는 강제성이 있으나 영상 인식은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해독할 수 있다. 둘째, 문자의 경우 순서를 따라 정리된 정보를 축적해 가면서 독해가 이루어지나 영상은 1/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셋째, 문자언어는 크기나 형태의 변화도가 낮고 색채 언어의 사용도 단순하다. 그러나 영상은 크기나 형태의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색채는 만여 가지에 이른다. 때문에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 작은 편차도 식별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영상은 그렇지 않다. 넷째, 문자는 언어 코드가 다를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나 영상은 형태적 언어와 내용이 일치한다. 다섯째, 문자언어를 해독하는 데는 부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영상 언어의 경우 자유로운 자세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문자인식은 지시적이고 표현의 유연성이 없으며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는 감각적 판단에 따르게 되고 직접 참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적 문화를 지닌다. 또 영상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매체의 영향으로 전 감각을 인식에 동원하고 있는 세대이다. 디지털 매체의 경우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 일정한 행동을 취하여야 화면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신체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며 직관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세대가 종래의 문자 세대와 다를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3. 전자 공간과 현실 공간의 중첩 현상과 '놀이성'

1) 시뮬라크르(simulacre)와 가상 인간(Homo Virtuens)의 탄생

시뮬라크르(simulacre)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시뮬라크르는 흉내, 모방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수이다.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흉내를 낼 원 대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베끼기는 제1, 혹은 제2열에 속하는 시뮬라크르, 전통적인 재현 체계 속의 이미지이다. 시뮬라크르는 흉내낼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며, 이 원본 없는 이미지나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의 모형들을 보고 관람객들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속촌이라는 시뮬라크르가 관람객들에게 그 때 그 곳을 상기시킨다.

보드리야르는 이 개념을 놀랄 만큼 빨리,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그 의미를 직시하지는 못했다. 가짜가 현실을 지배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현실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믿는 거짓은 진실이다. 이 시뮬라크르의 개념은 가상의 세계, 놀이의 세계와 일의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오타쿠이다.

오타쿠들은 일정한 직장도 없고 가정 생활, 재테크 등에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한 부분, 예를 들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가수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하다. 그 스타가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심지어 초등학교 때 짝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세계에서는 존경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가상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분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의지도 보인다. 예를 들면 오타쿠들은 펜진 박람회를 열어 잡지를 전시하기도 하고 스타들의 옷차림을 본뜬 코스프레 행사도 한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몰입이 심해지면서 오타쿠들은 변해버린 자신의 논리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오타쿠들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최근 게임의 중독성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몰입의 정도가 과다해 무언가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게임으로 인해 자신감과 집중력이 향상하고 인터넷이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은 게임 중독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실 대응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다름이 주어진 제도를 급격히 파괴하지 않는 한 가치중립적이다.

우리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만화책을 본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맛보는 한바탕의 상상 세계이며 역에 도착하면 그것을 휴지통에 버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가상 공간의 놀이적 속성을 생활 공간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증대된다. 그리하여 호모 사피엔스의 근대적 인간은 호모 비르투엔스의 가상 인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2) 무선성과 놀이성

거리에서, 직장에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친구와 통신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그 순간의 사람들은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애인과 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적인 대화를 거침없이 하기도 한다. 핸드폰을 든 순간 그의 주위에는 일상과 고립된 일종의 가상 공간이 생성된다. 그런데 무선통신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이성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이다. 즉 그 가상 공간은 놀이 공간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제 가상 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선이 있는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가는 모든 공간으로 퍼져 버렸다. 인터넷 전용선은 허공으로 확산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네비게이팅한다고 말한다.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인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담긴 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허공에 던져져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지하철 공간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옆자리의 승객이 아니다. 나는 먼 곳의 누구와 통신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가상 공간의, 어디에도 없는 공간의 어느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보를 끄집어 내어 관계 맺고 있다.

유선 인터넷은 개인의 생각을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속도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새로운 통신 도구는 인간 집단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공동

으로 활용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집단적 지성과 상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듯 싶다. 인간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협동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축하고 변모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집합적 생각과 만남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이동성(mobility)이 무선 통신이 나오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동성은 편재성(ubiquity)의 특징을 드러낸다. 편재성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표적인 무선통신인 모바일 폰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집단 지성과 연결될 수 있다. 어느 장소를 가도 우리는 허공 속에서 정보를 불러내어 소통할 수 있다. 삼라만상 어느 곳에도 신이 깃들어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주술로 그 귀신들을 불러내어 소통하는 무당처럼, 우리는 오늘날도 신들린 듯이 허공을 향해 주문을 외운다.

3) 놀이성 증대의 예 : 오락의 경제학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 소니에서도 엔터

테인먼트 산업만이 살 길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오락의 요소가 새로운 경제의 견인차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영화, 음악, 카지노 산업 뿐 아니라 메가플렉스처럼 거대한 쇼핑몰과 놀이공원, 은행 등이 도심을 형성하며 생산과 소비, 오락성이 통합되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은 쓸모있는 상품을 사기보다 자신의 꿈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매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놀이공간으로 화해버린 메가플렉스를 거닐면서 그 공간 속의 캐릭터로, 주제로, 플롯으로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공간 전체가 놀이의 그것으로 화해버린 이유가 고작 부와 여가 시간이 늘어난 때문일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상의 폭격이 우리에게 몰입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한갓 소설에 몰입했던 근대인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곧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어른이 되었을 때 꿈을 버릴 수 있었으나 이제 영상의 폭격에 세뇌된 가상인간들은 놀이의 세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 경향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야기가 들어 있는 상품에 열광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사용하는 물건들, 공간, 사람들을 가상에서 겪은 이야기로 구성하고 싶은 것이다.

4. 가상성과 놀이성의 결합, 그리고 월드컵

2002년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은 술한 화제를 뿌리며 막을 내렸다. 8강 진출의 신화를 이룩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단합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평가의 근저에 아직까지 축구라는 놀이 자체의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축구는 전형적인 경쟁 놀이이며 따라서 내가 참여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축구의 스토리텔링은 특이하다. 원래 축구는 놀이이다. 11명의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11명의 축구 선수와 전반전, 후반전의 기간 동안 발로 공을 차서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넣는 경쟁 놀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흥미는 반감되는데 그것은 마치 컴퓨터 게임하는 모습을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축구 경기에는 관람객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 첫째, 스토리텔러로서의 아나운서와 해설자이다. 그들은 선수의 행동을 낱말이 이야기해 준다. 예를 들어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과감하게 태클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기도 한다. 물론 이 설명과 분석은 단조롭지 않다. 고사성어와 비유들이 등장하며 경쾌한 목소리로 해설자에게 질문을 구하기도 한다. 공을 넣었을 때는 정말 기쁜 듯 목소리를 높이고 공을 놓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듯 소리를 지르면서 축구를 보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다. 이들은 소설 속의 화자나 판소리의 창자(唱者), 무성영화의 변사의 역할을 한다.

관람객도 경기에 수동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붉은 악마'의 응원단을 조직해서 빨간 티셔츠, 페이스 페인팅으로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경기장 밖의 응원도 마찬가지이다. 별로 관계 없는 나라까지 서로 편을 갈라 응원하고 노래 부르며 손뼉친다. 바흐친의 다성성(phlyphony) 이론처럼 축구는 해설자, 선수, 관람석의 관객, 관람석 밖의 관객이라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연출하는 하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은 발달된 정보통신에 의해 전세계로 확산된다. 시대 곳곳의 대형 전광판과 세계에 방영되는 위성방송으로 일상의 공간은 삼시간에 놀이 공간으로 변모한다. 수 백만 명이 시청 앞 광장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대형 전광판의 힘이었다. 멀티미디어의 거대한 이미지의 폭격은 전세계를 축구의 놀

이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베컴의 닭벼슬 머리와 토티의 바람 머리는 젊은이들의 머리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고 스타들이 착용하는 시계, 귀걸이, 선글라스가 유행을 탄다. 젊은 여성들은 축구화와 운동 팬츠를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한다. 일상의 전공간이 축구장으로 화한 형국인 것이다. 미디어의 위력에 몰입된 사람들이 일상의 공간에 축구라는 놀이의 법칙을 적용시킨 것이다.

5. 6월 대중의 특성 : 일시성, 즉흥성, 폭발성

6월 대중의 정치적 가능성은 필자도 이미 6월에 예언한 바 있다(월드컵에 담긴 문화코드, 문화일보, 6. 27) 1980년, 서울역 광장에서의 민주화 열기를 기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민주와 민족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꿈이 이들에 의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적이 있다. 이론으로 무장한 회색의 꿈이 늘면서 참여하는 붉은 꿈과 어떻게 다른가?

마페졸리(Maffesoli)는 현사회가 사회적으로 선언된 것이 상실된, 즉 거대담론이 상실되어 시대에면서도 어느 순간 명백히 대중적인 결집력을 드러내는데 대

해 신부족주의(Neo- Tribalism)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부족들은 자신들의 소수 가치에 기초해서 응집하여 집단을 만든다. 예술 축제, 축구장 관중석, 극장 객석 등과 같이 이들은 강한 집합적 정서에 의해 응집했다가 곧 흩어진다. 이들은 고착된 가치관이나 이해 관계없이 집중된 구경거리에 순수한 감성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 힘은 무한하며 매력적인 것이다. 이 공동체는 중심이 되는 가치가 사라진 이 시대의 아노미적 혼란의 와중에 결집과 도덕적 재건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증거가 6월 대중, 촛불시위, 그리고 대통령 선거였다. 네티즌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비웃으면서 자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아 사이버 공간을 부유한다. 그리고 그들의 감성에 와 닿는 강력한 그 무엇을 발견했을 때 젊음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분출시킨다. 온라인의 에너지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젊은이들의 구심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의 커뮤니티의 특성은 이해 관계가 아닌 '정감'을 기초로 한다는데 그 특성과 강점이 있다. 즉 현실 공간에서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가며 공동체를 이루지만 인터넷에서는 보장되는 익명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취미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뭉친다. 차가운 머리로 따지지 않고 순수한 가슴으로 만나니 공

간의 장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양방향성은 인터넷 광장을 현실의 광장처럼 만든다. 그러면서 익명성, 시간과 공간에서의 자유로움은 사람들을 수평적 관계로 만든다.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어우러짐에 익숙해진 네티즌들이 같은 이슈를 들고 현실 공간으로 나왔을 때 그 위력은 엄청난 것이다. '붉은 악마'가 원래 인터넷 동호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을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성격을 띤 집단은 공감을 일으키는 이슈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의견을 모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따지지 않고, 가슴으로 만날 때 발휘되는 결집력이 현실에서의 이해관계와 제도의 견고함에 닳았을 때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가상 공간을 가볍게 움직이는 이들이 좋은 이슈를 가지고 공감의 장을 이루었을 때 그 폭발력이 엄청나듯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 폐해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이대생의 병역 의무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아 거의 성폭력에 가까운 말로 이화여대 게시판에 도배해 놓은 예가 그것이다.

또 인터넷의 여론 조성은 그것이 구어성 및 문자성과 다른 속성을 지니기 때문

에 여러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일회성 해프닝으로 지나갔으나 <살생부 파문>에서 우리는 그 위험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끼리끼리 모여 수다를 떠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세태 비판, 심지어 아는 사람 홍보는 것까지 무수한 화제거리들이 소통 공간에서 난도질되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가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인터넷의 글쓰기는 이런 수다떨기와 비슷하다. 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올리면 수많은 리플(답변)들이 달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한 광장에 있는 효과를 내는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의견이 말할 때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때는 사석에서 말할 때와 같이 가벼운 기분이 되지만 실제 결과는 글처럼 기록에 남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몇 잡을 일이 벌어진다. 이들이 지니는 역사 의식 또한 뚜렷한 방향성을 지니지 않는다. 몇몇 선동가에 의해 여론이 순식간에 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6월 대중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터넷에 관련한 서술 형식을 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들의 강점은 커뮤니티의 지향점이 총체

적이지 않으며 그 때 그 때 변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커뮤니티에 든 사람은 축구를 사랑해서 그 곳에 들른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커뮤니티를 떠날 수 있다. 이념이나 논리에 자기 평생을 맡기고 그 단체를 떠날 때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 세대들과는 성격이 판연히 다르다.

6.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하기

6월 이전, 386세대의 지식인들이 월드컵에 대해 지닌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온 세상을 열광시킨 축구경기의 저변에 깔려 있을지 모르는 광고주 - 구단주 - 언론사주로 이어지는 축구 산업의 거대한 고리들에 대해 의심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영상을 팔짱 낀 자세로 관전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달랐다. 영상의 폭격, 그 세뇌의 과정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오히려 현혹된 자신의 모습을 페이스 페인팅으로 뿔 달린 악마의 의상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현혹을 표현했다.

후기 산업사회를 의심하고 그 극복의 방식에 비교적 뚜렷하고 선명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386 세대와 이 디지털 세대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라고 보기에 그 고리가 너무 느슨하다. 때문에 <대토론회 기본 계획안>에 명기된 '6월에 분출되었던 시민의 힘을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386 세대 특유의 선명함과 추진력을 실을 경우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3년, 정치의 특정한 목적의식과 '재미'가 만났던 그 지점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젊은이들을 인정하자. 그들은 선도해야 할, 또는 특정 목적 의식의 포섭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현실의 대중이다. 따라서 만남의 자리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장소, 혼란과 잡종성이 뒤범벅이 되어 무엇이 주류인지 모르는 장소, 그러나 한데 어우러져서 재미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